

## ▶ 내신 기출 국어 미래엔-하편 ◀

### 5. 바른 언어생활

- (2) 우리말의 문장 표현 (65문제)-----1쪽  
(3) 의사소통과 언어 예절 (28문제)-----27쪽

### 6. 한국 문학의 흐름

- (1) 옛 노래 세 편 감상하기 (69문제)-----44쪽  
(2) 심청전 (46문제)-----76쪽  
(3)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56문제)-----109쪽  
(4) 삼포 가는 길 (52문제)-----138쪽

### 7. 해결해 봅시다

- (1) 로봇 시대, 인간의 일 (41문제)-----170쪽  
(2)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한 협상 (28문제)-----193쪽

### 8. 문학의 가치

- (1)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40문제)-----209쪽

### 9. 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기

-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61문제)-----233쪽  
(2) 국어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38문제)-----257쪽

◆빠른 전체 정답-----275쪽

◆해설-----279쪽

**교재 버전: 2021.06.12**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문덕 명리

### ■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논설문
성격	시사적, 해설적
제재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
주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기계가 공존·공생하는 길
특징	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를 제기함. ② 문제 해결의 방안을 로봇에 대한 것과 인간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접근함. ③ 인류 문명과 역사에 대한 유추를 통해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모색함.

### ■ 글의 구성

처음	인공지능의 개념과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
중간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와 그 해결 방안
끝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생존에 대한 전망

### ■ 글쓴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문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안전과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음.	
해결 방안	
① 로봇을 통제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이나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 제정</li> <li>· 로봇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작동하게 설계</li> </ul>
②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인 감정과 의지를 강화</li> <li>·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li> </ul>

### ■ 글쓴이가 생각하는 인간만의 특성

로봇이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함.</li> <li>· 고통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유연성과 창의성을 체득함.</li> </ul>
----------------------	---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려면 인간만의 특성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여야 함.

## ■ 수업 준비

307쪽 9~11행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 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석학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 제기에 타당성을 더한 부분이다. 스티븐 호킹은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의 결과로 그동안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여겨졌던 ‘의식’을 가진 로봇이 등장할 것이며, 인간이 하던 고등 사고를 기계가 하게 되면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과서 307쪽 14~16행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한 부분이다. 글쓴이는 ‘생각하는 기계’ 즉 인공지능의 등장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 불가능하므로, 혹시 닥쳐올지 모르는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교과서 308쪽 6~8행

다양한 상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 글쓴이가 제시한 기술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 중 하나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경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상황에 대한 대응 규정에 따라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과서 308쪽 16~18행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 인간은 감정에 좌우되어 때때로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놓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이성적, 비효율적 감정이 때로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의지적으로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교과서 310쪽 3~4행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 인류는 위험한 상황을 접하거나 결핍의 고통을 겪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고 이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발전해 왔다는 말이다. 결핍과 고통을 겪는 인간의 나약함은 기계와는 다른 인간 고유의 부족함이지만, 이것이 기계와는 다른 인간만의 능력이자 속성이라는 것이다.

## ■ 학습 활동 정리

① <로봇 시대, 인간의 일>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과 생각을 정리해 보자.

(1) 글쓴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써 보자.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안전과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

(2) (1)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쓴이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을 정리해 보자.

	방안 1 : 로봇을 통제하는 것	방안 2 :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이나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하는 방법</li> <li>로봇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작동하게 설계하는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인 감정과 의지를 강화하는 방법</li> <li>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li> </ul>
누가 하는가?	과학자들, 입법자들	각 개인

7-(1) 로봇 시대, 인간의 일

(3) 글쓴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해 보자.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면 인공지능 시대라는 변화에서도 로봇을 잘 활용하면서 로봇과 공존·공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① 이 글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읽어 보자.

(1) 다음 부분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평가해 보고, 글쓴이의 관점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을 써 보자.

<b>관점</b>	
감정과 의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감정과 의지가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b>글쓴이의 관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b>	
글쓴이의 관점에 동의한다. <input type="checkbox"/>	글쓴이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b>가답</b>	
<p style="color: blue;">: 인공지능이 발달하여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감정은 모방할 수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학습한다 하더라도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의 감정을 완벽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p> <p style="color: blue;">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의 감정 표현도 상당 부분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이미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이 개발되었으므로 머지않아 로봇이 인간처럼 상황에 따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p>	
<b>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b>	
<p style="color: blue;">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학습하고 나아가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에 대해 국제적 관리와 감시의 안전망을 구축하였듯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 개발에 대하여서는 국제적 규약에 의해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p>	

(2) 글쓴이의 관점이 나타난 부분을 더 찾아보고, 보완하거나 대체할 방안을 써 보자.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다.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라는 글쓴이의 관점은 기계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나는 이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인공지능 로봇들은 데이터의 수집과 조합을 반복하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아직은 인간이 설계한 한계 안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일 수 있으나, 빅데이터의 활용과 더 복잡한 조합의 적용으로 언제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계가 스스로 창의적인 답안을 찾아낼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기계가 내리는 창의적 답안에 인간과 같은 도덕성, 양심, 인류애와 같은 절대 선의 가치를 우선 조건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해결책일 것이다.

②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기>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려 보자.

<b>보기</b>
<p>우리는 이미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뇌를 사용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암기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화번호다. 휴대 전화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십 명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지금은 단축 번호나 검색으로 전화번호를 금방 찾을 수 있어서,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조차 못 외우는 경우가 다반사다.</p> <p>우리는 이미 의학적으로 두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 병원 ○○○ 교수는 “기억 대신 검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검색에 필요한 뇌 기능은 발달하지만, 두뇌의 기억 용량은 감소하게 된다.”라며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기억력이 쇠퇴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사람의 기억은 뇌의 해마라는 부위에서 주로 담당하는데,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마가 위축되어 기억 용량이 줄어든다고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b>- 조중혁, 《인터넷 진화와 뇌의 종말》</b></p>

(1)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상황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두뇌의 기억 용량이 감소하고 기억력이 쇠퇴하고 있다.

## 7-(1) 로봇 시대, 인간의 일

(2) 이 글에서 <보기>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의 글쓴이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계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억 대신 더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 '검색'의 뇌 기능을 발달시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보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글이나 자료를 더 찾아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인공지능 시대의 뇌 과학 연구 자료,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 보고서 <창의성 대 로봇> 등

③ 이 글과 다음 영화가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의 글쓴이는 감정과 의지가 인간과 로봇(기계)을 구분 짓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영화 <로봇, 소리>에서는 로봇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인간과 소통하며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교신을 끊거나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모습은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로봇을 보여 준다. 이는 로봇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감정과 의지라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관점과는 다른 모습이다.

## 인간과 기계

1.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 또는 '재앙'이 되는 상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개발이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대신하는 경우 인류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되겠지만,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2. 글쓴이가 생각하는 인간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 인간은 기계와 달리 감정과 의지를 가진다는 점이다.

3. 글쓴이가 '결핍'과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 결핍과 고통은 기계에는 부여하지 않는 인간의 약점이다. 그러나 이 결핍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유연성과 창의성을 체득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계와 인간을 구분하는 요소이므로 결핍과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한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추므로써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 일인가,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 일인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 석학들이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엔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 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며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격렬한 공방을 가져올 주제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는 점이다.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나)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는 두 갈래다.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이다.

첫째는,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로봇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나,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無力化)할 수 없는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만들어 내고, 입법자들은 강력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적용할 것이다.

(다) 둘째는, 생각하는 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의 특징을 찾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즉,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인간 고유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의식 현상을 구현해 낸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구분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지만 인간됨을 규정하는 본능으로,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감정은 강점이면서 동시에 결함이 된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감정과 의지

에서 비롯한 것이다. 인류는 진화의 세월을 거쳐 공감과 두려움,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발달시켜 왔다. 인간의 감정과 의지는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인류가 살아 남으려고 선택한 전략의 결과이다.

(라)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이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의 과제라면,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특징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은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인공지능 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우리에게 기계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기계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이것은 단지 기계와의 경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인간이 해오던 많은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상황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의 의미를 묻는 것이다.

(마)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핍과 그에 따른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이러한 결핍과 고통에서 느낀 감정을 동력으로 발달해 온 고유의 생존 시스템이다. 처음 마주하는 위험과 결핍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류는 놀라운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대응해 왔다. 결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류가 체득한 생존의 방법이 유연성과 창의성이 있다. 이것은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은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최후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계를 설계할 때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서 비롯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인간의 약점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합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을 지닌 존재이다. 하지만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과제의 궁극적인 방향은 기계와의 경쟁이 아닌 공존과 공생이다. 인간 고유의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서도 인간이 생존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 구분권,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둔촌고등학교 (서울)**

1. 밑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특성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체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연구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 ⑤ 서로 대비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분촌고등학교 (서울)**

2. 밑글에서 제시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성
- ②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인간과 로봇의 관계
- ③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 ④ 인공지능의 실생활 사례와 그 장단점
- ⑤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진 두 가지 과제

**분촌고등학교 (서울)**

3. 밑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 ① 인공지능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따른 법적인 규제를 제정하자!
- ② 인공지능의 발달을 통해 인간의 비효율적인 속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 ③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요소를 차용하자!
- ④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인류가 기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자!
- 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기계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이를 위해 인간만의 속성을 개발하자!

**분촌고등학교 (서울)**

4. 밑글 친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 ② ㉠은 기술적 차원에서, ㉡은 입법적 차원에서 각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③ ㉠은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은 각 개인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 ④ ㉠은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과제이고, ㉡은 인간의 가치를 찾는 것과 관련된 과제이다.
- ⑤ ㉠은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과 관련된 것이고, ㉡은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다.

**분촌고등학교 (서울)**

5. 밑글 친 ㉢와 관련하여 글쓴이가 강조한 인간만의 속성 2가지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 일인가,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 일인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계적 석학들이 인공지능 개발이 결국엔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 시작했다.

(다) '생각하는 기계'가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미지의 영역이며 미래 사회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는 격렬한 공방을 가질 주제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가 이제껏 고민해 본 적이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는 점이다. 거대한 영향력을 지닌 신기술의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밑바닥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라)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과제는 두 갈래다. 바로 로봇을 향한 길과 인간을 향한 길이다.

(마) 첫째는, 인류를 위협할지도 모를 강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로봇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로봇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만들어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나, 살인 로봇을 막는 국제 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담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회적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이 작동하게 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설계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로봇이 스스로 무력화(無力化)할 수 없는 원격 자폭 스위치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만들어 내고, 입법자들은 강력한 법률과 사회적 합의를 적용할 것이다.

**무거고등학교 (울산)**

6. 이 글의 글쓰기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를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 ② 화제의 관점 제시 방법으로 상반되는 질문을 제시하여 독자에게 문제를 제기해야겠어.
- ③ 인공지능 발달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해야겠어.
- ④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태도를 비판해야겠어.
- 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여러 예를 열거하여 제시해야겠어.

**무거고등학교 (울산)**

7. 글쓰기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보강하려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 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① (가)의 뒤                      ② (나)의 뒤
- ③ (다)의 뒤                      ④ (라)의 뒤
- ⑤ (마)의 뒤



#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한 협상” 협력 방안

## ■ 핵심 정리

갈래	협상 담화
성격	문제 해결적, 협력적
제재	추모 공원 건립
주제	초록구 하늘산 일대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한 협상
특징	① 협상의 절차에 따라 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이 이루어짐. 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참여자의 경쟁적, 협력적 말하기가 잘 나타남. ③ 협상의 준비, 시작, 조정, 해결의 단계별 협상 전략이 드러남.

## ■ 협상의 개념

협상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
----	---

## ■ 협상의 과정

① 시작 단계 :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초록구 대표	입장	푸른시 관계자
추모 공원 건립을 반대함.	입장	초록구 하늘산 일대가 추모 공원 건립의 최적지임.
화장 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혐오 시설 설치에 따른 집값 하락 등 지역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	문제의식	화장 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구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면 추모 공원 설립이 가능함.	문제 해결의 가능성	환경 오염이나 집값 하락의 가능성은 확보된 기술력으로 해결 가능함.

② 조정 단계 :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상호 검토하여 입장 차를 좁힌다.

초록구 대표의 입장	환경 오염 문제와 주거 조건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추모 공원을 건립할 수 없음.
푸른시 관계자의 수정안 제시	방안당과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최소 필요 시설인 화장장만 설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함.
초록구 대표의 요구	화장장 및 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요구함.
푸른시 관계자의 요구 수용	요구를 반영하여 화장장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 설계안을 제시함.
초록구 대표의 문제 제기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독성물질에 의해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함.
푸른시 관계자의 대안 제시	①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연소 설비와 가스 냉각 설비를 최고 수준으로 갖추어 줌. ② 공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항류형 화장로’를 설치할 예정임.
초록구 대표의 추가 요구	화장장 및 화장로의 규모를 반으로 축소해 달라고 요구함.
푸른시 관계자의 요구 수용 거절	부족한 화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5기는 필요함을 주장하며 초록구의 요구 수용을 거절함.
초록구 대표의 양보, 합의	푸른시 관계자의 최소 요구사항을 수용함.
푸른시 관계자의 대안 제시	환경 오염이라는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 대안으로 환경 감시 제도를 운용하여 시설 관리를 강화할 것임.
초록구 대표의 현실적 대안 요구	피해를 보상할 현실적 방안으로 의료 시설, 문화 체육 시설 등 생활 편의 시설을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함.

7-(2)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한 협상

③ **해결 단계** :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한다.

초록구 대표	푸른시 관계자
<p>종합 체육관 건설은 비용과 용도 면에서 부정적임을 근거로 초록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p>	<p>시립 의료 병원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에는 시에서 대학 병원 규모의 의료 시설 설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추모 공원 건립에 동의함.</p>
<p>초록구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초록구에 의료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을 약속함.</p>	

■ 푸른시 관계자와 초록구 대표가 협상 중 점검·조정된 의사소통 방식

초록구 대표	의사소통 방식	푸른시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인사를 하며 발언을 시작하여 상대의 배려를 인정하고 협력적으로 대화할 마음이 있음을 드러냄.</li> <li>· 협상 진행 과정에서 원안을 적절히 수정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려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초록구 대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고려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음.</li> <li>· 협상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입장, 감정과 태도를 고려하고 있음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도록 말함.</li> <li>·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여 문제를 명확히 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했음을 전달함.</li> <li>·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려 함.</li> </ul>

## 읽고 생각

320쪽 대표와 푸른시 관계자가 추모 공원 건립에 각각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b>초록구 대표</b>	화장 시설 가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혐오 시설 설치에 따른 집값 하락 등 지역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
<b>푸른시 관계자</b>	화장 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교과서 320쪽 초록구 대표와 푸른시 관계자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정리해 보자.

<b>초록구 대표</b>	구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면 추모 공원 건립이 가능함.
<b>푸른시 관계자</b>	환경 오염이나 집값 하락의 가능성은 기술력 확보로 해결 가능함.

7-(2)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한 협상

321쪽 관계자가 초록구 대표의 의견을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점검·조정했을 의사소통 방식의 내용을 추측해 보자.

- 초록구 대표의 의견을 들을 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며 초록구 대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자신이 적절히 반응하고 있는지 고려함.
-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협상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고, 초록구 대표의 입장, 감정과 태도를 고려하고 있음이 상대에게 느껴지도록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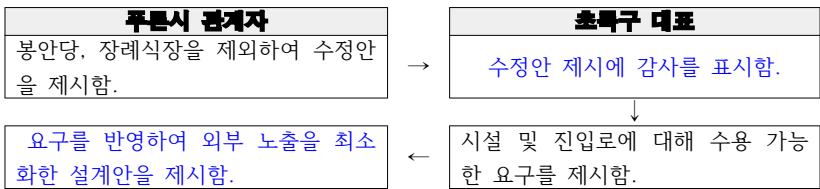
교과서 322쪽 푸른시 관계자가 초록구 대표의 말을 다시 진술한 까닭을 말해 보자.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함으로써 문제를 명확히 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임.

교과서 322쪽 초록구 대표가 “저희의 처지를 이해하고 ~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상대의 배려를 인정하고 협력적으로 대화할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임.

교과서 322쪽 양측이 상대방의 제안을 검토하며 입장 차를 좁혀 가는 과정을 정리해 보자.



교과서 323쪽 초록구 대표의 질문에 푸른시 관계자가 추가로 설명한 까닭을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의사소통의 과정을 점검하여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려 함.

교과서 323쪽 초록구 대표가 생각을 바꾸어 푸른시가 계획한 화장로 15기 설치를 수용한 까닭을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화장로 15기 설치가 푸른시의 최소 요구 조건임을 이해하게 되어, 협상 진행 과정에서 원안을 적절히 수정하여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려 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초록구 대표 :** 우리 초록구는 하늘산 자락에 자리를 잡아 공기가 맑고 주변 환경이 조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초록구가 다른 지역보다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도 우리 국민들은 하늘산의 자연조건에 큰 의의를 두며 생활해 왔습니다. 푸른 시에서 추진하는 추모 공원 건립 사업이 시 차원에서 필요한 일인 것은 알겠지만, 이러한 결정이 화장 시설 가동으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와 혐오 시설 설치에 따른 집값 하락 등 지역 주민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우리 초록구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 공원 건립을 반대합니다.

**푸른시 관계자 :** 최근 화장에 대한 국민 호응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푸른시의 화장률은 2016년에 이미 80%를 넘어섰고,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푸른시에는 화장 시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설 규모는 한계 능력을 초과하여 수요자의 약 20% 정도가 삼일장(三日葬)을 원하는데도 사일장(四日葬) 이상을 치르거나 다른 지역 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하늘산 일대가 시설 건립의 최적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초록구에서는 환경 오염과 집값 하락의 가능성을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확보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록구 대표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구에 추모 공원을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이 구민의 의견입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화장 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카드뮴, 염화 수소, 미세 먼지, 다이옥신, 수은 등이 배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차량이 통행하면서 발생할 교통 혼잡과 소음 등이 조용한 삶을 선호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우리 주민은 환경적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이러한 주거 조건 하락으로 입을 경제적 손실도 우려됩니다. 우리는 화장 시설 설치가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시 관계자 :** 아직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이나 묘지가 혐오 시설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장 시설 설치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도 주택가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 도심에만 공영 화장장이 20개가 넘는데, 그중에는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해 바로 옆에 6층 높이의 아파트가 나란히 서 있는 현대식 화장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하는 시설도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을 포함한 추모 공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녹지와 다양한 문화 시설을 휴식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록구 대표 :** 아니, 장례식장과 봉안당이 있는 곳에 어떤 문화 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주민이 어떻게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푸른시 관계자 :** 초록구 주민들께서는 새로 조성되는 추모

공원이 문화 시설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최소 필요 시설인 화장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여, 문화 시설의 성격이 강화된 추모 공원을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록구 대표 :** 저희의 처지를 이해하고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제외하는 안으로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이 있다는 것이 최대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례 차량의 출입이 하늘산 등산객과 인근 주민의 눈에 덜 띄도록 화장 시설을 지하화하고 진입로도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푸른시 관계자 :** 저희도 주민의 처지에서 화장장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설계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준비한 설계안을 보시겠습니까? 지상에는 나무숲 공원을 조성하고 방문객이 출입하는 곳은 이 나무숲에 가려지게 설계하여 땅에 묻힌 듯 드러나지 않는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지붕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구 대표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축 설계적 차원에서 기존 화장장의 단점을 보완하려 고심하신 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우려하는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매연, 분진 및 다이옥신과 수은 등으로 주거 환경이 오염되어 주민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시 관계자 :** 네,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 문화가 발달한 나라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연소 설비와 가스 냉각 설비를 최고 수준으로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화장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향류형 화장로'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수은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초록구 대표 :** 향류형 화장로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제거를 확인하시지만, 다이옥신과 수은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푸른시 관계자 :** 네, 향류형 화장로라는 말이 좀 생소하지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향류형 화장로는 연소 물질을 화장로 내부에서 4회 연소하는 방식입니다. 매연가스가 밖으로 바로 배출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배출 가스 및 냄새 문제를 해결한 최첨단 친환경 화장로입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다이옥신과 수은의 배출량은 매우 미미합니다. 다이옥신 배출은 소각 시설 허용 기준의 10분의 1 이하이며 수은 배출은 기준치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저희가 설치할 화장로는 이 또한 분사 냉각 장치와 여과 집진 시설로써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초록구 대표 :** 아무리 화장로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해도 화장로 15기로 하루 6회씩이나 화장을 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화장장 및 화장로의 규모를 반으로 축소해 주십시오.

**푸른시 관계자 :**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화장로 규모는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화장 시설을 확보하려면 15기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근 시의 화장 시설

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때에 쾌적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초록구 주민 여러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15기 미만을 운용하면 새 화장장을 건립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20기를 설치해 하루 8회씩 운용하는 것이었으나, 환경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최소 규모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초록구 대표 :** 알겠습니다. 15기 운용이 현실적인 최소 필요량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을 운용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 대표로 구성된 감시단이 지속해서 감시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운용 축소를 요구하겠습니다.

**푸른시 관계자 :** 저희도 환경 감시 제도를 운용하여 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변 500m 이내의 대기, 수질, 토양, 생활환경을 지속해서 평가하는 환경 감시단 활동에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환경 오염 없이 시설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만약 주민이 우려하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화장로 가동 횟수를 감축하겠습니다.

**초록구 대표 :**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푸른시의 필요 시설 확충으로 저희 구민이 입게 되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할 현실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시에서 생활 편의 시설도 함께 유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초록구는 의료 시설이 부족해 가까운 다른 시나 도심의 의료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문화 체육 시설도 부족합니다. 시립 의료 시설과 종합 체육관을 함께 유치해 주십시오.

**푸른시 관계자 :** 푸른시의 평균적 사회·문화 시설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초록구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시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 체육관 건설은 그 비용과 용도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가까운 사랑구의 종합 체육관도 만성 적자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초록구민도 사랑구의 종합 체육관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립 의료 병원은 현재 시설이 낙후하여 이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초록구에 의료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초록구 대표 :** 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만약 관계 부처의 반대로 시립 의료 병원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시에서 대학 병원 규모의 의료 시설 설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추모 공원 건립에 동의합니다.

**푸른시 관계자 :** 좋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협상 합의안을 작성하겠습니다.

**풍문고등학교 (서울)**

3. 뒷글에서 푸른시 관계자가 취한 협상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대측이 제기할 요구 사항을 사전에 예측하고 미리 준비한 대안을 실물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 ② 상대측의 말을 재진술하여 자신이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음을 밝히고 문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 ③ 먼저 상대측의 감정을 헤아리고 있음을 밝힌 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대측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상대측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원안을 축소하여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상대측의 대안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상대측의 배경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말하기를 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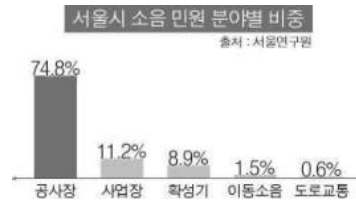
**풍문고등학교 (서울)**

4. 초록구 측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해 협상에 추가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추가할 만한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갤러리로 꾸민 독일의 화장장 사진 자료



- ②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통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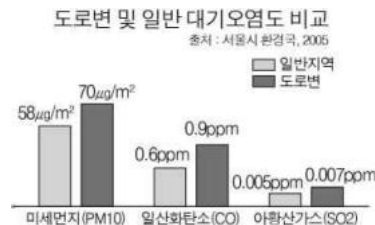
- ③ 다이옥신의 위험성

**POPs의 종류**  
다이옥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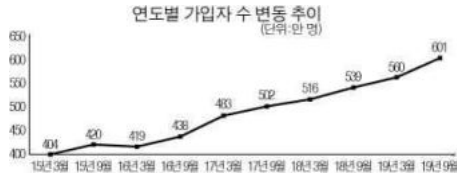
도시 고형 폐기물 및 산업 폐기물의 소각시설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

- ☑ 대기를 통해 퍼지고 산림, 농산물, 토양 등을 오염
- ☑ 어패류, 소고기와 낙농 유제품,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품을 통해 체내 축적
- ☑ 신생아에게 내분비장애나 암을 유발, 기관지 손상

- ④ 도로변과 일반 지역의 대기오염과 비교 자료



⑤ 연도별 화장장 추이



**풍문고등학교 (서울)**

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푸른시는 만족하나, 교섭 영역을 벗어난 안건은?

<보기>

협상에서 제안할 때는 그 제안이 교섭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교섭 영역이란 협상 당사자 사이의 합의 가능 영역 (zone of possible agreement, ZOPA)이라고도 하는데, 협상 당사자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 또는 범위를 말한다.

- ① 초록구에 종합 체육관 건설
- ② 화장로 규모 15기를 절반으로 축소
- ③ 초록구에 시립 의료 시설 이전 설립
- ④ 문화 시설 성격이 강화된 봉안당과 화장장 설립
- ⑤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된 환경 감시단 제도의 운용

**풍문고등학교 (서울)**

6. 다음은 위 협상의 최종 합의안이다.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합의안에 누락된 내용([A], [B])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푸른시 추모 공원 건립 합의안>**

1. 푸른시는 초록구 하늘산 일대에 화장장 시설을 포함한 추모 공원을 건립한다.
2. 화장로는 15기를 설치하여 1일 각 6회 이하로 운영한다.
3. 향류형 화장로 시스템 도입으로 공해 발생을 최소화한다.
4. 푸른시는 초록구에 시립 의료 병원을 이전하거나, 불가할 경우 ( [A] )
5. 주민 대표로 구성된 환경 감시단이 화장장 주변 500m 이내의 환경을 지속해서 평가하고, 환경 문제 발생 시 화장로 가동 횟수를 감축한다.
6. ( [B] )

<조건>

[A], [B]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서술할 것

**풍문고등학교 (서울)**

7. 다음은 서희와 소손녕의 협상 담화 중 시작 부분이다. 협상의 시작 단계에 양측이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서술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 협상이 순조롭게 조정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소손녕의 이어질 말([가])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성종 12년,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였다. 다음은 거란 장군 소손녕과 고려의 외교가 서희 사이의 협상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소손녕 : “그대의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으니, 고구려 땅은 우리의 땅인데 당신들이 침범하였다. 또,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면서도 송을 섬겼기에 출병한 것이다.”

서희 :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였다. (중략) 압록강 동쪽의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돌려준다면 어찌 서로 앙래하지 않겠는가?”

소손녕 : “그렇다면 \_\_\_\_\_ [가] \_\_\_\_\_ ”

<조건>

1.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한 가지 서술할 것
2. <조건1>과 관련하여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조정 단계로 넘어가려면 소손녕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초록구 대표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를 예상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구에 추모 공원을 건립할 수 없다는 것이 구민의 의견입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화장 시설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카드뮴, 염화 수소, 미세 먼지, 다이옥신, 수은 등이 배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차량이 통행하면서 발생할 교통 혼잡과 소음 등이 조용한 삶을 선호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우리 주민은 환경적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 ]

**푸른시 관계자 :** ㉠**아직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이나 묘지가 혐오 시설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장 시설 설치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사항으로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이웃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도 주택가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 도심에만 공영 화장장이 20개가 넘는데, 그중에는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해 바로 옆에 6층 높이의 아파트가 나란히 서 있는 현대식 화장장도 있습니다. 이번엔 건립하는 시설도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을 포함한 추모 공원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녹지와 다양한 문화 시설을 휴식 공간으로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록구 대표 :** 아니, 장례식장과 봉안당이 있는 곳에 어떤 문화 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주민이 어떻게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푸른시 관계자 :** 초록구 주민들께서는 새로 조성되는 추모 공원이 문화 시설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최소 필요 시설인 화장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여, 문화 시설의 성격이 강화된 추모 공원을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록구 대표 :** 저희의 처지를 이해하고 봉안당과 장례식장을 제외하는 안으로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이 있다는 것이 최대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례 차량의 출입이 하늘산 등산객과 인근 주민의 눈에 덜 띄도록 화장 시설을 지하화하고 진입로도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푸른시 관계자 :** ㉦**저희도 주민의 처지에서 화장장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설계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준비한 설계안을 보시겠습니까?** 지상에는 나무숲 공원을 조성하고 방문객이 출입하는 곳은 이 나무숲에 가려지게 설계하여 땅에 묻힌 듯 드러나지 않는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지붕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구 대표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축 설계적 차원에서 기존 화장장의 단점을 보완하려 고심하신 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우려하는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매연, 분진 및 다이옥신과 수은 등으로 주거 환경이 오염되어 주민의 건강한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시 관계자 :** 네,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 문화가 발달한 나라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연소 설비와 가스 냉각 설비를 최고 수준으로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화장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향류형 화장로'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 시설은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수은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초록구 대표 :** 향류형 화장로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제거를 확인하시지만, 다이옥신과 수은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푸른시 관계자 :** ㉧**네, 향류형 화장로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향류형 화장로는 연소 물질을 화장로 내부에서 4회 연소하는 방식입니다. 매연가스가 밖으로 바로 배출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배출가스와 냄새 문제를 해결한 최첨단 친환경 화장로입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다이옥신과 수은의 배출량은 매우 미미합니다. 다이옥신 배출은 소각 시설 허용 기준의 10분의 1 이하이며 수은 배출은 기준치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저희가 설치할 화장로는 이 또한 분사 냉각 장치와 여과 집진 시설로써 90% 이상 제거할 수 있습니다.

**푸른시 관계자 :**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화장로 규모는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화장 시설을 확보하려면 15기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근 시의 화장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때에 쾌적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초록구 주민 여러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15기 미만을 운용하면 새 화장장을 건립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20기를 설치해 하루 8회씩 운용하는 것이었으나, 환경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최소 규모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초록구 대표 :** ㉨**알겠습니다. 15기 운용이 현실적인 최소 필요량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을 운용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 대표로 구성된 감시단이 지속해서 감시하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운용 축소를 요구하겠습니다.

**푸른시 관계자 :** ㉩**저희도 환경 감시 제도를 운용하여 시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변 500m 이내의 대기, 수질, 토양, 생활환경을 지속해서 평가하는 환경 감시단 활동에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환경 오



#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분석 정리

■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생태적, 교훈적, 비판적
배경	시간: 현대 / 공간: 어느 시골 마을
제재	고양이를 어미라 생각하는 다람쥐
주제	· 동물에 대한 인간 중심적 사고 비판 · 동물들이 야생의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의 중요성
특징	① 주인공 ‘어머니’의 자식인 ‘나’를 서술자로 하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② 대상에 대한 인물의 애정을 따뜻한 시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작품의 구성

발단	어머니는 우연히 야생 다람쥐를 만나 함께 지내고, 그 후 어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다람쥐는 어머니의 집에서 새끼까지 낳음.
전개	어머니와 살면서 야생성을 잃은 다람쥐는 어머니가 며칠 간 집을 비운 사이 죽게 됨.
위기	살아남은 다람쥐 새끼들을 고양이가 키우게 되고, 그 중 유일하게 생존한 수다람쥐는 자신을 고양이로 생각함.
절정	수다람쥐는 어머니가 데리고 온 암다람쥐를 만나 다람쥐의 본성을 되찾아가고, 어머니와 다람쥐의 이야기가 유명해져 주변인들이 다람쥐를 얻어 가 애완동물로 기름.
결말	어머니는 다람쥐가 야생동물로 살아가길 바라며 더 이상 다람쥐들을 나눠 주지 않음.

■ 어미 다람쥐의 죽음 이후 어머니의 태도 변화

어미 다람쥐에게 먹이를 구해 주며 다람쥐를 기른 어머니	어머니는 다람쥐를 아끼는 마음에 먹이를 모두 구해 주었고, 어미 다람쥐는 먹이를 어머니에게 의지하게 됨.
↓ 어미 다람쥐의 죽음	
다람쥐가 가진 야생 동물의 습성을 지켜 주려는 어머니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람쥐가 본래 습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줌.

■ 동물에 대한 관점의 차이

어머니	야생 동물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본연의 습성을 잃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안타까워 함.
사람들	동물 고유의 습성을 무시한 채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고, 사람의 욕심에 맞추어 길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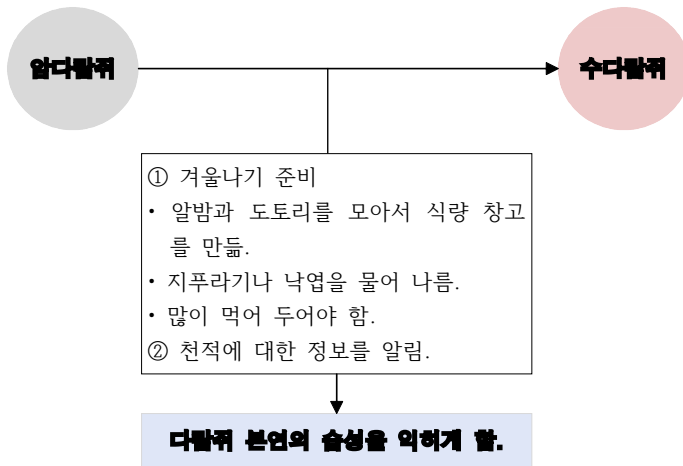
■ 소설의 주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부분

p.351 '야생동물의 ~ 아름답기 때문이다.'	동물은 야생에서 본연의 습성대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어머니의 생각을 통해 글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냄.
----------------------------------	--

■ 소재의 의미와 기능

<b>습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 대대로 내려온 것임.</li> <li>• 다람쥐들의 안식처로 사용됨.</li> </ul>
<b>급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끼를 낳은 집에 나쁜 병이나 무서운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걸어 두는 상징물임.</li> <li>•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보여 줌.</li> </ul>
<b>먹이, 밥, 목은 밥, 열매 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람쥐의 생존을 위해 어머니가 마련한 것들임.</li> <li>•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을 느낄 수 있음.</li> <li>• 다람쥐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는 원인이 됨.</li> </ul>

■ 암다람쥐의 역할



■ 소재의 의미와 기능

<b>습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것임.</li> <li>• 다람쥐들의 안식처로 사용됨.</li> </ul>
<b>급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끼를 낳은 집에 나쁜 병이나 무서운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걸어 두는 상징물임.</li> <li>•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보여 줌.</li> </ul>
<b>먹이, 밥, 목은 밥, 열매 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람쥐의 생존을 위해 어머니가 마련한 것들임.</li> <li>•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을 느낄 수 있음.</li> <li>• 다람쥐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는 원인이 됨.</li> </ul>

**주요 문단**

339쪽 7행      좋아하는 자식은 둘째인 나다. 어머니는 나 때문에 해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

이 글의 서술자인 '나'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서술자는 주인공인 '어머니'의 둘째 아들이라는 점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작품의 시점이 주인공인 '어머니'를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교과서 341쪽 14~15행      어머니는 갑자기 눈시울을 문질렀다. 외로움 때문이다. 그리움 때문이  
 다. 다람쥐가 어머니의 가슴속에 있는 그리움을 불러낸 셈이다.

→ 어머니가 다람쥐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 이유가 나타나 있다. 어머니는 장성한 자식들을 떠나보낸 후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외롭게 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자신에게 다가온 다람쥐를 보며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다람쥐에게 애정을 느끼고 있다.

## 8-(1)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344쪽 7~15행

지난봄부터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다. ~ 야생 동물이 먹이 구하는 본능을 잃어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어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다람쥐도 마찬가지였다.

→ 어머니에게 길들여진 탓에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고 어머니가 주는 보살핌에 의존적인 다람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물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것은 사실 동물이 가진 본래 습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술자는 '불행'을 가져온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서 345쪽 4~21행

어머니는 감나무 밑에 한 무더기 떨어진 부엉이 똥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커다란 다람쥐 머리뼈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신을 원망했다. ~ 다람쥐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몸을 지킬 만큼 진화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과서 346쪽 6~10행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죽이지 않고 자기 새끼로 생각한다는 점이 꿈만 같았다. 순간적으로 어머니는, / “신이야말로 공평하십니다.” / 하면서 두 손을 모았다.

→ 어머니는 처음에 어미 다람쥐가 죽고 다람쥐 새끼들이 어미 없이 남겨지게 되자 이를 안타까워하며 신을 원망했다. 약한 동물인 노루의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닐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보다 약한 다람쥐의 새끼는 주변의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는 약한 상태로 태어나도록 한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며 원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처지에 놓인 다람쥐의 새끼를 결국 어미 고양이가 돌보는 모습을 본 어머니는 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교과서 347쪽 11~20행

쥐나 참새를 사냥하는 방법도 배웠지만 발톱이 날카롭지 않은 다람쥐 새끼들은 번번이 실패하였다. ~ 부엉이 발톱에 할퀴어 큰 부상을 당한 다람쥐는 어머니에게 발견되었다.

→ 다람쥐 새끼들이 다람쥐가 아닌 고양이의 습성을 익히면서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있다. 결국 어머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다람쥐는 다람쥐의 습성을 익히며 자라야 한다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

교과서 348쪽 18~20행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탈곡기 안에 숨어든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았다. 어머니는 그 다람쥐를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술독에 사는 다람쥐와 함께 사흘간 가둬 놓았다.

→ 야생에서 자라온 암다람쥐는 수다람쥐에게 다람쥐의 습성을 익히게 해주는 존재이다. 어머니는 고양이에게 길러진 수다람쥐를 위해 일부러 암다람쥐를 술독에 가둬 놓고 암수다람쥐가 함께 있도록 한 것이다.

교과서 349쪽 7~8행

“얘야, 나가서 네 짝이랑 자거라. 너는 다람쥐야 사랑하고 가까워질수록 너는 나약해져.”

→ 예전에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먹이도 가져다주며 보살펴 주었지만, 다람쥐가 다람쥐의 습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어머니 자신의 보살핌도 다람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나타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350쪽 7~351쪽 1행

다람쥐 집은 앵무새를 키웠던 작은 철창 집이었는데, 그 철창 안에 작은 쳃바퀴가 있었다. 다람쥐는 그 속에서 재롱을 부렸다. 그날 어머니는 하마터면 울 뻔 하였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물론 사람들은 애완동물이라고 했다.

→ 어머니는 사람들이 다람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다람쥐를 나누어 준 것인데, 사람들이 쳃바퀴에 다람쥐를 가둬 둔 것을 보고 슬퍼한다. 현대 사회에서 애완동물이라는 명목으로 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즉, 동물들이 본연의 습성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 길들여지는 상황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 351쪽 18~19행

아무리 사람이 야생 동물을 행복하게 해 줘도, 야생 동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8-(1)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현대인들은 동물을 행복하게 해 준다는 의미로 애완동물을 기른다. 하지만 이는 동물의 고유한 습성을 무시한 채 인간 중심으로 인식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어머니는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워하고 비판하고 있다.

**학습 활동 문제**

① 어미 다람쥐의 죽음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 보자.

- 사건 이전: 다람쥐의 먹이도 챙겨 주고, 함께 있으면서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사건 이후: 다람쥐가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고 스스로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② 등장인물들이 ‘다람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찾아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작품에서 근거를 찾아 이야기해 보자.

	다람쥐에 대한 생각	그 근거
어머니	“다람쥐는 야생 동물이야.”	어머니는 다람쥐를 다람쥐답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단지 동물들이 야생에서 본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카, 표장, 마을 사람들	<b> 예시 답 </b> “다람쥐는 애완 동물이야.”	<b> 예시 답 </b> “기르기 쉽고, 무엇보다도 귀여우니까요.” 등의 표현을 통해 다람쥐를 애완 동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읽고 생각 문제**

1. 어머니가 다람쥐에게 더 이상 밥을 주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 다람쥐가 자신의 본성을 되찾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이다.
2. 사람들이 다람쥐를 키워 보고 싶어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 다람쥐를 애완동물로 생각하여 기르기 쉽고 귀엽다는 이유를 들어 키워 보려는 것이다.
3. 사람이 야생 동물을 행복하게 해 줘도 야생 동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 야생 동물은 자신의 본성을 지니고 자신의 힘으로 생존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머니는 하도 반가워서 은연중에 다람쥐를 쓰다듬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놀라 일어섰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고 해도 그놈은 야생 다람쥐가 아닌가. 잘못 건드리다가는 물릴 수도 있다. 다람쥐는 이빨 독이 있는지라 물리면 잘 낫지도 않는데……. 하지만 다람쥐는 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그제야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미안하다. 사람이란 이래.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못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거든. 그래서 늙으면 교활해지지. 이해하렴.”

커다란 집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는 마치 말뚝을 만난 듯했다.

(나) 그날부터 다람쥐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식들 이야기, 농사일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못할 이야기가 없다. 다람쥐는 어머니를 비웃지 않는다. 항상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 준다.

(다) 전에는 밤늦게 일에 지쳐서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잤다. 손발도 씻지 않았다. ㉡밥상 차릴 기운도 없었다. 그런데 다람쥐가 반기면서부터 달라졌다. 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밥을 먹는다. 막내의 밥그릇을 차지한 다람쥐는 이제 하찮은 동물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보니 외로움도 별 게 아니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니깐 쉽게 없어지니 말이다.

(라)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침부터 허둥댔다. 다람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한번도 없었다. 불안했다. 혹시, 고양이나 개한테 물려 죽은 건 아닐까? 족제비나 담비에게 당했을지도 모른다. 부엉이나 올빼미의 짓일지도 모르고. 아, 그리고 보니 ㉢다람쥐를 노리는 눈이 너무 많았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불쌍한 것…….’

어머니는 그날 종일토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밥도 들어가지 않았다.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동물한테 정을 주면 못쓴다. 어차피 동물은 사람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그런데 동물한테 정을 주면 그런 자연의 이치가 무너지거든…….”

하고 말했던가.

(마) 다람쥐는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쪽으로 와 보세요.”

하듯이 부엌으로 뛰어갔다.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다람쥐는 몇 번이나 그 행동을 되풀이했다. 그제야 어머니는 다람쥐를 따라갔다. 다람쥐는 부엌 밖으로 나갔다. 부엌 밖에는 자그마한 문이 있다. 보일러실이다. 그 곳도 예전에는 부엌이었다. 다만 부엌을 고치면서 보일러실 겸 창고로 칸막이했을 뿐이다. 다람쥐는 부일러실 구석으로 가더니, 땅바닥에 조그마하게 나 있는 구멍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호미로 그 구멍을 팠다. 그러자 판자가 보였다. 판자를 들어내자 커다란 독이 나왔다.

“술독이 어디에 묻혔나 했더니, 여기에 있구먼. 그래, 다행이구나. 너희가 술독에서 편안히 살고 있으니 말이다. 이 술독은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것이지. 우리 집에서는 시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술독이 필요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 잊어버렸구나. 아무튼 잘됐다.”

(바) 술독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지푸라기로 동그랗게 만들어진 동지 안에 다람쥐 새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웁아, 새끼를 낳았구나. 허허허, 경사로군. 금줄을 만들어야겠다. 금줄은 왼새끼줄로 만들지. 금줄을 치면 나쁜 병이나 무서운 동물이 들어오지 못한다.”

어머니는 보일러실 문에다 새끼줄을 꼬아서 ㉦금줄을 걸었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우화이다.
- ㉡ 대상에 대한 인물의 따뜻한 시선이 드러난다.
- ㉢ 시골의 어느 마을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 ㉣ 인물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된 이야기이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그동안 인간의 삶을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 ㉡ 자신의 행동으로 동물이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 ㉢ 다람쥐에게 물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 ㉣ 다람쥐가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 ㉤ 다람쥐도 야생동물이라는 것 때문에 경계심을 느꼈기 때문에

**분촌고등학교 (서울)**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다람쥐를 돌보느라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계신다.
- ② ㉡ : 다람쥐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 ③ ㉢ : 서울에 있는 자식들도 다람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 : 다람쥐의 행동을 보고 서술자가 상상하여 진술하고 있다.
- ⑤ ㉤ : 다람쥐 새끼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과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분촌고등학교 (서울)**

4. ‘㉠그 생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을 참고하여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맨 처음 다람쥐가 나타난 것은 1994년 3월이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씨 고구마를 고르고 있었다. 추위에 약한 고구마는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얼어서 썩어 버린다. 물론 따뜻한 방에다 보관하지만 봄이 되면 썩은 게 절반이다. 환갑을 넘긴 어머니는 점점 농사를 줄이는 중이지만, 자식들에게 부쳐 줄 농사는 최소한으로 지으신다. 고구마, 감자, 고추, 콩, 팥, 쌀농사 따위다. 쌀농사야 기계로 한다지만, 밭농사는 모두 손으로 해야 한다. 고구마를 좋아하는 자식은 둘째인 나다. 어머니는 나 때문에 해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

(나) 어머니는 하도 반가워서 은연중\*에 다람쥐를 쓰다듬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놀라 일어섰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고 해도 그놈은 야생 다람쥐가 아닌가. ㉡잘못 건드리다가는 물릴 수도 있다. 다람쥐는 이빨 독이 있는 지라 물리면 잘 낫지도 않는데……. 하지만 다람쥐는 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그제야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미안하다. 사람이란 이래.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못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거든. 그래서 늙으면 교활해지지. 이해하렴.”

커다란 집에서 혼자 사는 어머니는 마치 말뚝을 만난 듯했다.

(다) 어미 잃은 새끼들

㉢어머니는 다람쥐 어미를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보고 들은 경험으로 다람쥐의 먹이를 구하고, 밥도 주었다. 묵은 밤도 구해다 주었다. 열매라고 생겼으면 무엇이든지 따다 주었다. 사실 지난봄부터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다. 애써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가 다 구해다 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다람쥐의 식성\*을 잘 알았다. 곤충도 먹고, 생선도 먹는다. 가끔씩 풀도 먹고 물도 마셔야 한다. 새끼들은 무력무력 자랐다. 수컷 다람쥐는 서너 번 보이더니 사라졌다. 다른 동물에게 당한 모양이다. ㉣그래서 암컷 다람쥐는 더욱 먹이를 어머니에게 의존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암컷 다람쥐가 얼마만큼 게을러져 있는지 몰랐다.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야생 동물이 먹이 구하는 본능을 잃어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어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다람쥐도 마찬가지였다.

(라) 야생 암다람쥐는 수놈에게 하나씩 교육을 시켰다. 우선 겨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알밤과 도토리를 모아다가 식량 창고를 만들었다. 식량 창고는 돌 틈이나 땅속애다 마련했다. 10여개의 도토리나 밤을 모아 놓고 흙을 덮어 수십 개의 창고를 만든다. 지푸라기나 낙엽도 물어 날랐다. 그래야만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때문이다. <중략> 다람쥐 부부는 일곱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고양이 짚을 먹고 자란 수컷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녔다. 풀, 도토리, 도마뱀도 있었다. 하도 안쓰러워서 식량 창고를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간섭도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힘든 시절이 필요하다. 그 시절을 겪어야만 좀 더 성숙해지니까. 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방법을 깨닫기 때문이다.

(마) ㉤그 후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한 마리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곤란해진 적도 있고, 이상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심지어 읍내에 사는 어머니의 조카 손주가 와서 매달려도 고개를 흔들었다. 그 아이는 울고 난리가 났다. 어머니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했다. 조카도 화를 냈다.

“이모, 그까짓 다람쥐가 뭔데 이러세요! 제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요. 애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요. 이모, 이렇게 제가 부탁할게요. 두 마리만 파세요.”

그래도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



# 중세 국어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 중세 국어: 고려 시대(10세기)부터 임진왜란 이전(16세기 말)까지 사용되던 국어
- 전기: 14세기 말까지의 시기로서 대체로 고려에 해당함. 훈민정음 창제 이전
  - 후기: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시기로 조선 시대 전반기에 해당함.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시기로 국어의 옛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많음.
- 현대 국어: 개화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국어. 일제 강점기로 인해 우리의 말과 글이 국어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함으로써 독자적인 표기 방식을 확립함.

## 중세 국어에 쓰인 문법 개념

- 성조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으로 16세기 말엽에 소멸되었다. 중세 국어에서 상성이었던 음절은 대부분 현대 국어의 장음으로 남아 있다.

	방점	소리	예
평성	없음	낮은 소리	나
거성	한 개	높은 소리	.미
상성	두 개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말

- 모음 조화
 

양성 모음(·, ㅏ, ㅑ, ㅓ, ㅕ, ㅗ)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ㅜ, ㅠ, ㅡ, ㅜ, ㅠ)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 중세 국어에 서는 현대 국어보다 엄격히 지켜졌으나 16세기 말 ‘가’ 소실되면서 문란해지기 시작했다.

- 예
 

·뿌메(+애): 음성 모음인 ‘ㅜ’와 ‘ㅑ’가 결합함 → 모음 조화 지켜짐.  
 북·매(+애): 양성 모음인 ‘ㅓ’와 ‘ㅑ’가 결합함 → 모음 조화 지켜짐.

-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15세기에는 이어 적기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16세기에는 끊어 적기가 확대되어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가 함께 나타났다.

구분	개념	예
이어 적기 (연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을 뒷말의 초성으로 표기한다.	:말썩·미, 기·픈. :구·만·래
끊어 적기 (분필)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것.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더라도, 앞말의 받침은 그대로 두고 뒷말의 초성에 ‘ㅇ’을 적는다.	:몸·이며, 들:운

- 어두 자음군
 

음절의 첫머리(초성)에 자음이 연속으로 둘 이상 발음되는 무리. 크게 ‘비’계와 ‘스’계로 나누어 쓰이다가 17세기 즈음에 모두 된소리로 변했다.  
 ·쁘·들’의 ㅃ, ‘·뿌·메’의 ㅃ

- 병서
 

초성이나 종성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

합용 병서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는 표기법 ㉠ ㅃㅅ, ㅃㅗ, ㅃㅑ, ㅃㅓ, ㅃㅕ, ㅃㅗ, ㅃㅑ, ㅃㅓ, ㅃㅕ, ㅃㅗ, ㅃㅑ, ㅃㅓ, ㅃㅕ
각자 병서	서로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표기법 ㉠ ㅃㅃ, ㅃㅃ, ㅃㅃ, ㅃㅃ, ㅃㅃ, ㅃㅃ

-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 세종 당시 우리의 현실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고친 것. 중국 운서를 토대로 한 인위적인 한자음으로 실제 통용음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 한자음이다.
  - 세종, 세조 때에만 사용되고 세조 이후(1485년경) 소멸됨.
  - 표기 규칙



- ①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함. ㉠름, 中(중)國(국)
- ② 반드시 ‘초성+중성+종성’의 3성 체계를 갖추어 표기하였으며, 받침이 없는 글자는 종성에 음가가 없는 ‘ㅇ’이나 ‘ㅇ’을 받쳐 적음. 御(영)·製(정)·쟁(어제)를 ‘영쟁’로 표기함.)
- ③ 이영보래(以影補來): ‘ㄹ’ 받침 한자는 반드시 ‘ㄹ’로 표기함. 月(월), 日(일)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의 변화**

- ‘ㅎ, ㅌ, ㅍ, ㅊ’ 등의 음운이 사용되다가 소멸됨.
- 철저히 지켜지던 모음 조화가 점차 약화됨.
-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가 사라짐.
- 방점을 찍어 나타내던 성조가 소멸됨.
- 주격 조사로 ‘이(이/ㅣ/∅)’를 사용하다가 ‘가’도 사용됨.
- 보편적인 표기법이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바뀜.
- 띄어쓰기를 하지 않다가 오늘날에는 띄어쓰기를 함.

**■ 국어의 역사성**

- 국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형태,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문법 요소에 변화가 생기기도 함.  
→ ‘국어는 변화하는 실체이다.’
- 국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를 보다 잘 알게 하고, 나아가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소중한 국어 의식을 고양할 수 있게 함.

**“훈민정음의 창제 의의” 문역 정리**

■ 핵심 정리

갈래	번역문
성격	교시적, 설명적
주제	훈민정음의 창제 의도
특징	① 15세기 중세 국어의 모습이 잘 드러남. ②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자주 정신, 애민 정신, 창조 정신, 실용 정신)이 잘 드러남.

■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타난 내용

당대 문자의 현실	국어와 한자는 서로 통하지 않음.
새 문자의 창제 동기	글자를 몰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에
새 문자의 창제 목적	백성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 <세종 어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

자주 정신	나·랏·말싸·미중(중)國(국)·에달·아(우)문(문)字(자)·쥬(주)·와·로(로)서(서)르(르)스(스)뎡(뎡)·디아·니(니)홀(홀)·썩(썩)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애민 정신	·내(내)·이(이)·를(를)爲(爲)·왕(왕)·하(하)·야(야)·어(어)엿(엿)·비(비)너(너)·겨(겨)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기어)
창조 정신	·새(새)·로(로)·스(스)·물(물)여(여)·뎡(뎡)字(자)·쥬(주)·를(를)뎡(뎡)·ᄃ노(노)·니(니)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실용 정신	:사(사)름(름)·마(마)·다(다)·히(히)·애(애)·수(수)·비(비)니(니)·겨(겨)·날(날)·로(로)·부(부)·메(메)·뎡(뎡)안(안)·리(리)·호(호)·고(고)·저(저)·훈(훈)·스(스)·르(르)·미(미)·니(니)·라(라)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

- ① 자음(초성) 17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옛이음), ㅈ, ㅊ, ㅋ, ㆁ, ㅍ, ㅎ, ㆁ(여린하음), ㅇ, ㆁ(반치음)
- ② 모음(중성) 11자: ㅡ(아래아), ㅏ,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 \*밑줄 친 자음과 모음은 오늘날 쓰이지 않음.

■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

- ① 음운
  - ㅁ, ㅇ, ㆁ, ㆁ가 사용됨. ㄹ :말쓰·미듬, :수·비
  - 모음 조화가 규칙적임. ㅏ·ㅓ·ㅕ·ㅗ·ㅛ·ㅜ·ㅠ·ㅡ·ㅜ
  - 어두 자음군이 쓰임. ㅏ·ㅓ·ㅕ·ㅗ·ㅛ·ㅜ·ㅠ·ㅡ·ㅜ
  -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나타냄.
- ② 문법
  - 명사형 어미 '-음/-음'이 쓰임. ㅏ·ㅓ·ㅕ·ㅗ·ㅛ·ㅜ·ㅠ·ㅡ·ㅜ
  - 비교 부사격 조사 '에'가 쓰임. 中 國 國 語 學 에
  - 주격 조사 'ㅣ'가 쓰임. ㅏ·ㅓ·ㅕ·ㅗ·ㅛ·ㅜ·ㅠ·ㅡ·ㅜ
  - 종속적 연결 어미 '-르씨'가 쓰임. ㅏ·ㅓ·ㅕ·ㅗ·ㅛ·ㅜ·ㅠ·ㅡ·ㅜ

- ③ 표기
  - 병서가 쓰임. ㅏ·ㅓ·ㅕ·ㅗ·ㅛ·ㅜ·ㅠ·ㅡ·ㅜ
  - 이어 적기로 표기함. ㅏ·ㅓ·ㅕ·ㅗ·ㅛ·ㅜ·ㅠ·ㅡ·ㅜ
  - 8종성법 표기가 쓰임. ㅏ·ㅓ·ㅕ·ㅗ·ㅛ·ㅜ·ㅠ·ㅡ·ㅜ
  - 동국정운식으로 한자음을 표기함. 中 國 國 語 學 字 彙 便 便 安 安

■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의 변화

	국어	현대 국어	변화
음운	(방점)ㅇ	성조 ×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으나, 이는 임진왜란 이후 소멸되었다.
	니르·고·져	이르고자 ( 말하고자 )	·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ㄴ'이 'ㅣ'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두음 법칙의 영향으로 '니'가 '이'로 바뀌었다. ·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난 어미 모음의 양성화에 따라 어미 '-고져'가 '-고자'로 바뀌었다.
	ㅁ·츙·내	마침내	'ㅣ'가 소실되면서 'ㅏ'와 'ㅣ'로 바뀌었다.
	ㅏ·ㅓ·들	뜻을	어두 자음군이 소실되고 된소리로 바뀌어 'ㅁ'이 'ㅌ'이 되었다.
	ㅏ·디	펼치	'ㄷ, ㅌ'이 'ㅣ' 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의 영향으로 '-디'가 '-지'로 바뀌었다.
ㅏ·스·물	스물	평순 모음 '-ㅏ'가 'ㅁ, ㅂ, ㅍ' 등의 아래에서 'ㅜ'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의 영향으로 '스물'이 '스물'로 바뀌었다.	
문법	中 國 國 語 學 에	중국과	중세 국어에는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에'가 있었다.
어휘	어린	나이가 적은	중세 국어에서는 '어리석은'의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나이가 적은'을 뜻한다.
	ㅏ·노·미	놈이	중세 국어에서는 '보통 사람'의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추어 가리키는 말'이다.
	ㅏ·어·뻐·비	어여쁘게	중세 국어에서는 '가엾게, 불쌍하게'의 뜻이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여쁘게, 예쁘게'를 뜻한다.
표기	ㅏ·노·미/ ㅏ·러·미·나·라	놈이/ 따름이니라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가 널리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끊어 적기가 보편적이다.
	띄어쓰기×	띄어쓰기○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나, 현대 국어에 서는 띄어쓰기를 한다.

**더 알아보기**

■ 모음조화

양성 모음	·, ㅏ, ㅑ, ㅓ, ㅕ, ㅗ
음성 모음	ㅡ, ㅜ, ㅠ, ㅡ, ㅠ, ㅡ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 후에 ‘·’가 소멸되면서 ‘·’와 ‘ㅡ’의 대립이 없어져 모음 조화가 문란해짐.

**■ 구절 읽기**

381쪽 2~3행 :랏·말싸·미중동國·궤·에달·아문문字·중·와·로서르스뫼·디아·니홀·씨

→ 이 구절은 우리말과 우리말을 적기 위해 사용한 중국의 문자인 한자가 서로 불일치하여 한자와 다른 우리만의 문자 체계가 필요하다는 자주 정신을 드러낸 부분이다.

교과서 381쪽 3~4행 :이런전·츠·로어·린百·빅姓·성·이니르·고·저·홍·배이·셔·도모·츄·내제·  
쁘·들시·러퍼·디·문홍·노·미하·니·라

→ 당시 한자는 지배 계층이 통치 수단으로서 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자를 익히기 어려웠던 일반 백성들은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지배 계층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교과서 381쪽 4~5행 :내·이·를爲·왕·후·야·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들字·중·롤빙·기노·니

→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음을 밝힌 구절로 임금의 애민 정신과 창조 정신이 나타난다. 훈민정음의 28자는 자음(초성) 17자, 모음(중성) 11자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381쪽 5~6행 :사람마다·히·여수·비니·겨·날·로·뿌·메便便安안·키·고·저·홍·쓰·르·미  
니·라

→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을 설명한 구절로 우리의 글자를 누구나 쉽게 익혀서 매일 편리하게 쓰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실용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 문역 정리**

■ 핵심 정리

갈래	악장, 서사시
성격	송축적, 예찬적
제재	조선 왕조의 창업
주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
특징	①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으로 총 125장으로 이루어짐. ② 1장과 125장을 제외한 모든 장은 2절 4구체로 구성됨.

■ 창작 동기

<b>세 왕조의 정당성 부각</b>	조선 왕조의 창업이 하늘의 뜻에 의한 역사적 순리라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사대부들의 충성심을 자극하고 민심의 이반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김.
<b>훈민정음의 실용성 시험</b>	훈민정음 창제에 때맞추어 그 실용성을 점검하여 국자(國字)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
<b>후대 왕에 대한 견제</b>	왕조 창업 과정에서 보인 선조들의 영웅적 업적과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밝혀, 후대 왕들에게 왕권 수호의 책임을 맡기는 한편 '경천근민(敬天勤民)'의 통치 방향을 제시하여 왕권 계승의 자세를 일깨우기 위함.

■ 작품의 구성

<b>제1장</b>	조선 건국의 천명성을 노래함.
<b>제2장</b>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함.

■ 중세 국어 자료로서의 특징

① 음운

- ‘·’가 사용됨. ㉠ ㄴ·라·샤, ㄴ·남·근, ㄴ·하·느·니
- 모음 조화가 규칙적임. ㅍ·라·매, 바·라·래
-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 성조를 나타냄. ㅍ·라·매, 바·라·래

② 문법

- ‘ㅎ 종성 체언’이 존재함. :내·히(내ㅎ+ㅣ) → 내히 / ‘ㅎ 종성 체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될 때는 ‘ㅎ’이 그대로 유지되고, ‘ㄱ’, ‘ㄷ’, ‘ㅂ’ 앞에서는 그것과 결합하여 ‘ㅋ’, ‘ㅌ’, ‘ㅍ’을 만들며, 휴지(休止)나 관형격 표지 ‘ㅅ’, ‘은’ 앞에서는 탈락됨.)
- ‘ㄱ 덧생김 체언’이 쓰임. ㄴ·남·근(나무를 뜻하는 ‘나모’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될 때 끝모음 ‘ㅇ’이 떨어져 ‘ㄱ’이 덧생김.)
- 주격 조사 ‘이’가 쓰임. :시·미(십+이)
- 종속적 연결 어미 ‘-르씨’가 쓰임. :말·씨, 그·출·씨

③ 표기

- 각자 병서가 쓰임. :말·씨, 그·출·씨
- 이어 적기로 표기함. 기·픈, ㅍ·라·매, ㅁ·르·른, ㄱ·라·래

■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의 변화

	국어	현대 국어	변화
<b>음운</b>	(방점)○	성조 ×	중세 국어에서는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했으나, 이는 임진왜란 이후 소멸되었다.
	남·근	나무는	· 중세 국어에서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조사 ‘-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나모’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남’으로 이형태 교체를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나무’만 사용한다. · 양성모음이나 음성모음이나에 따라 ‘은’과 ‘은’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현대 국어로 변화하면서 ‘·’ 음운이 소실되며 ‘은’만 쓰이게 되었다.
	ㅍ·라·매 (ㅍ·라·매)	바람에	· ‘·’가 소실되면서 ‘ㅌ’로 바뀌었다. · 모음 조화가 혼란을 겪어 조사 ‘애’가 ‘에’로 바뀌었다.
	:도·코	좋고	· ‘ㄷ, ㅌ’이 ‘ㅣ’ 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의 영향으로 ‘도-’가 ‘중-’으로 바뀌었다. · 단모음화의 영향으로 어간의 ‘교’가 ‘고’로 바뀌었다.
	ㅁ·르·른	물은	평순 모음 ‘-’가 ‘ㅁ, ㅂ, ㅍ’ 등의 아래에서 ‘ㄱ’으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의 영향으로 ‘르’이 ‘물은’으로 바뀌었다.
<b>문법</b>	불·휘 :내·히	뿌리가 내가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 ‘이(ㅣ/ㅣ/∅)’가 쓰였으나, 근대 국어에 이르러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의 주격 조사로 ‘가’가 쓰이게 되었다.
	ㄴ·라·샤	나시어	중세 국어에서는 자음 어미 앞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모음 어미 앞에 ‘-샤’로 구분하여 썼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시’만 사용함.
<b>표기</b>	기·픈/ ㅁ·르·른	깊은/ 물은	중세 국어에서는 이어 적기가 널리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끊어 적기가 보편적이다.
	띄어쓰기×	띄어쓰기○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나, 현대 국어에 서는 띄어쓰기를 한다.

■ 표현상의 특징

<b>통국 고사 활용</b>	육조(六祖)의 위대함을 중국 제왕들의 사적과 일치시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함. (제1장)
<b>은유·상징의 사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의 주역을 '육룡'에 비유함. (제1장)</li> <li>· 자연물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전망함. (제2장)</li> </ul> ㉠ 뿌리 깊은 나무·샘이 깊은 물: 기초가 튼튼한 나라, 바람·가뭄: 시련과 고난, 꽃·열매: 문화, 샘 → 내 → 바다: 조선 왕조의 영원한 발전
<b>대구 형식</b>	전절과 후절이 대구를 이루어 문학적 형식미를 지님. (제2장)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b>-시-</b>	뒤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할 때
<b>-샤-</b>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 주격 조사의 쓰임

<b>이</b>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b>ㅣ</b>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b>ㅇ</b>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 구절 풀이

382쪽 2~3행 (해동)六龍(육룡)·이·누·르·샤·일·마다天福(천복)·이·시·니

→ 조선 창업의 주역인 여섯 임금(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을 용에 비유함으로써 조선 건국이 천명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 왕권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교과서 382쪽 4행 古聖(고성)·이 同符(동부)·하·시·니

→ 조선의 육조가 한 일이 중국의 옛 창업 성군(주 무왕, 은 탕왕, 한 고조, 당 태종 등)들이 한일과 부절을 맞춘 듯이 일치함을 들어, 조선 건국의 정당함과 천명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교과서 382쪽 6~9행 불·휘기·픈남·근부·르·매·아·니·밀·씨·곳·도·코여·름·하·노·니 / :시·미기·픈·므·른·꺾·래·아·니·그·출·씨·내·히·아·러·바·르·래·가·노·니

→ 고도의 상징 기법과 순우리말로 표현된 부분으로 <용비어천가>의 백미로 꼽힌다. 뿌리가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처럼 기초가 튼튼하고 유서 깊은 나라는 '바람'과 '가뭄', 즉 어떠한 내외의환(內憂外患)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번성해 나갈 것임을 표현하였다.

## 모락신 모락 모음

① 다음을 보고,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지와 모음지를 찾아보자.

中 國·꺾·에	·흙·배이·셔·도	느르·샤
---------	-----------	------

자음자: ㅇ, ㅎ / 모음자: ㆍ(아래아)

② 다음 글자의 왼쪽에 찍힌 점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했는지 말해 보자.

나·랏 :말쓰·미

- 왼쪽에 찍힌 점: 방점
- 기능: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어 단어의 뜻을 구별하도록 하였다.

③ 윗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어휘 변화를 살펴보자.

(1) 다음 어휘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자.

중세 국어의 의미			현대 국어의 의미	
	어리석은	→	나이가 적은(의미 이동)	
노미	사람(보통의 의미)	→	사람(낮춤의 의미, 의미 축소)	
어엿비	볼썽히	→	어여쁘게, 예쁘게(의미 이동)	

(2) <세종어제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에서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 사라진 어휘를 찾아보자.  
하다(하·니·라, ·하느·니), 전·츠, 뭐다(:랄·씨)

④ 중세 국어를 현대 국어로 바꾸어 보고, 표기상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세종어제훈민정음	말쓰미, 노미	→	말씀이, <u>높이</u>
용비어천가	기픈, 부르매	→	<u>깊은</u> , 바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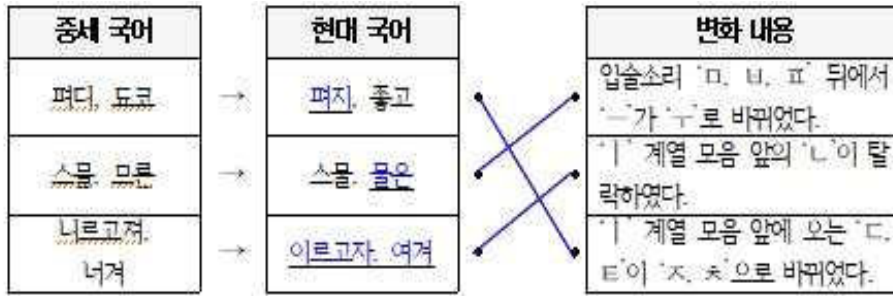
- 표기상의 차이점: 중세 국어에서는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을 뒷말의 초성으로 표기한다.

⑤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써 보고, 중세 국어와 비교하여 변화한 점을 말해 보자.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세종어제훈민정음	등꺾에 달아	→	중국 <u>과</u> 달라
	니르고져 흙 배 이셔도	→	말하고자 하는 바 <u>간</u> 있어도
용비어천가	불휘 기픈 남근		뿌리 <u>간</u> 깊은 나무는

- 변화한 점: 현대 국어에서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에' 대신 '과'가 쓰이고,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붙는 주격 조사로 '이(이/ㅣ/∅)' 대신 '가'가 사용된다.

● 빈칸에 알맞은 현대 국어를 써 보고, 변화 내용을 찾아 연결해 보자.



● ● ● 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국어는 변화하는 실체이다.

국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다. 우리의 말과 글은 시대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형태나 의미, 소리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御製製訓民正音

㉠나라:말쓰미 ㉡中동國국에 달아 文문字字와로 서르 스  
 맛디 아니홀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  
 홀 ㉢배 아셔도 ㅁ·츄:내제 ·ㅂ·들 사러 퍼디 :물홀 ·노미 하  
 나라 ·내 ·아·홀 ㉣爲왕·하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字·를 밍·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나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한키 하·고져 홀 쓰르·미니라

<훈민정음> 언해, 1459년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  
 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  
 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  
 금 쉽게 익히서 날마다 쓰는 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  
 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을 읽고 국어의 변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  
 다.
- ②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  
 다.
- ③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방점을 찍어 성조를 표시하  
 였다.
- ④ 중세 국어의 ‘·’(아래 아)는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음운으  
 로 사용되지 않는다.
- ⑤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서 둘 이상  
 의 자음이 쓰일 수 없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ㅅ’은 현대 국어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겠군.
- ② ㉡의 ‘에’는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군.
- ③ ㉢의 ‘ㅣ’는 주격조사로,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가 사용되었  
 군.
- ④ ㉣의 ‘하야’를 보니 모음조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 ⑤ ㉤을 보니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가락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사용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 ① ‘말씀’은 ‘일반적인 말’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의 말을 높  
 여 이르는 말이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가리킨다  
 는 점에서 의미 확대의 예이다.
- ② ‘사맛다, 전초’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  
 휘 소멸의 예이다.
- ③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의미했는데, 오늘날 ‘나이가 적다’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 ④ ‘놈’은 ‘일반 사람’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남자, 사람’을 낮잡  
 아 이르는 말로 쓰여 의미 축소의 예이다.
- ⑤ ‘어엿보다’는 ‘가엾다’를 의미했지만, 오늘날 ‘예쁘다’를 가리  
 킨다는 점에서 의미 이동의 예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4. <보기>의 ㉠, ㉡, ㉢의 사례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ㅇ’을 입시울소리 아래 니어 쓰면 ㉠입시울 가배야부 소리  
 두외느니라

[현대어 풀이] ㅇ을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된다.

· ‘와 -와 그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첫소리 아래 브터 쓰고 ㅣ  
 와 ㅏ와 ㅑ와 ㅓ와 ㅕ와란 ㉢을흔녀긔 브터 쓰라.

[현대어 풀이] ·와 -와 그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첫소리 아래  
 붙여 쓰고 ㅣ와 ㅏ와 ㅑ와 ㅓ와 ㅕ는 오른쪽에 붙여 쓰  
 라.

- |         |      |     |
|---------|------|-----|
| ㉠       | ㉡    | ㉢   |
| ① 文문字字  | 나라   | 퍼디  |
| ② 百백姓성이 | 하·고져 | 니겨  |
| ③ 밍·노니  | 이런   | 달아  |
| ④ 히·여   | ㅁ·츄내 | 시러  |
| ⑤ 수·비   | 물홀   | 하나라 |

  
 www.chongmanguk.co.kr



**가락고등학교 (서울)**

5. <보기>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 ㉡에 해당하는 음운을 각각 쓰시오.

<보기>

훈민정음은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자를 만든 다음 이를 기초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자음은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만들었으며, 가획의 원리에서 벗어난 글자인 이체자가 있었다. 모음도 먼저 ㉡기본자를 만든 후, 이 기본자를 합성시켜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6. <보기>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중세국어 표기법을 쓰시오.

<보기>

• 말쌈미                      • ㅼ들  
• ㅼ매                          • ㅼ르미나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宗御製製訓訓民正正音音

㉠나라:말쌈미 中東國國에 ㉡달아 文文字字종와로 서르 슷  
뎨디 아니홀썸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성·이 니르·고·져  
·㉣홀·배 아·셔·도 ㅼ·츰·내·제 ㉤·ㅼ·들 사·러 파·디 :물·홀 ·노·미  
하·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ㅼ·궤·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뵈 나·겨 ·날·로 ·ㅼ·매  
便·便安·한·키 ㅎ·고·져 홀 ㅼ·르·미·나·라

**구미고등학교 (경북)**

7. 윗글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부사격 조사를 표기할 때 ‘ㅼ’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 ② ㉡ : 용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 이어 적기하여 표기하였다.
- ③ ㉢ : 한자어를 표기할 때 형식적으로 종성 ‘ㅇ’을 사용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표기하였다.
- ④ ㉣ : 주격 조사를 쓸 때 모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를 쓰지 않고 생략하였다.
- ⑤ ㉤ : 초성을 쓸 때 합용 병서를 단어의 첫머리에 써서 어두 자음군을 표기하였다.

**구미고등학교 (경북)**

8.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중세국어와 현대 국의 차이점을 탐구한 자료 중 일부이다. 탐구자료 ㉠-㉣에 들어갈 적절한 예시만을 짝지은 것은?

<보기>		
탐구 영역	탐구 자료	탐구 내용
음운의 측면	㉠	가연 : 중세국어 시기에는 두음 법칙이 없었다고 볼 수 있군.
어휘의 측면	㉡	나연 : 국어가 변화하면서 어떤 어휘는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어휘는 그 의미가 바뀌기도 하는군.
문법과 문법 요소 측면	㉢	다연 : ‘가’가 쓰일 자리에 다른 형태가 쓰인 것을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구나.

- |        |      |                 |
|--------|------|-----------------|
| ㉠      | ㉡    | ㉢               |
| ① 서르   | 어엿브다 | :물·홀 ·노·미 하·나·라 |
| ② 니르고져 | 어리다  | 홀 ·배 아·셔·도      |
| ③ 날로   | 전초   | 나·랏 :말·쌈·미      |
| ④ 너겨   | 놈    | ·스·물·여·들 字·종·를  |
| ⑤ 사름마다 | 나라   | 百·백·성·이 니르·고·져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宗宗宗御製製訓訓民正正音音

나라:말쌈미 中東國國에 달아 文文字字종와로 서르 슷  
·디 아니홀썸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성·이 니르·고·져 ·  
·홀 ·배 아·셔·도 ㅼ·츰·내·제 ㅼ·들 사·러 파·디 :물·홀 ㉡·노·미 하·  
·나·라 ·내 ·아·를 爲·왕·하·야·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ㅼ·궤·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뵈 나·겨 ·날·로 ·ㅼ·매  
便·便安·한·키 ㅎ·고·져 홀 ㅼ·르·미·나·라

- 「훈민정음(訓民正音)」 언해본에서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언어 문화

## 언어 공동체

<b>개념</b>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의사소통하는 사회 집단
<b>구분</b>	민족, 가족, 지역, 세대, 성별, 직업 등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담화 관습을 가진 양한 언어 공동체가 존재함.

### ■ 한국어 언어 공동체의 전통적 담화 관습

<b>몰려 말하기</b>	표현하면 감정을 해지거나 좋지 못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부드럽게 돌려서 표현함. ㉠ “(비가 오자 며느리 등에 업힌 손자에게) 할미가 업어줄까.” → 며느리에게 빨래를 걸으라는 뜻을 돌려 말함.
<b>빗대어 말하기</b>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구체적인 사물에 이입하여 표현함. ㉠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히리까?’ → 춘향이 자신의 절개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함.
<b>신중하게 말하기</b>	말을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김.
<b>겸양의 말하기</b>	자신에 대한 칭찬은 줄여서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그를 높여서 말함. ㉠ “별로 차린 것이 없습니다.”
<b>인행일치의 말하기</b>	말과 행동, 또는 말과 실질이 부합하지 않는 언어 사용을 경계함. ㉠ 속담 ‘말이 앞서지 일이 앞서는 사람 본 일이 없다.’
<b>귀 기울여 듣고 선택적으로 듣기</b>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들을 말과 듣지 않을 말을 가려들어야 함을 강조함. ㉠ 속담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 말라.’ 등

### ■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

-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전통적 담화 관습을 성찰하여 바람직한 문화는 계승·발전시키고 오늘날의 사회·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려는 태도가 필요함.
- 특정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담화 관습은 다른 언어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언어 공동체와 소통할 때에는 청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함.
-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 차별하는 표현 등 부정적인 언어의 영향을 인식하고 품위 있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형성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 ■ 우리말 어휘의 종류

<b>고유어</b>	다른 나라의 말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예부터 우리의 것인 단어,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단어. 순우리말이라도 부름. ㉠하늘, 땅, 아버지, 어머니 등
<b>외래어</b>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 ㉠버스, 컴퓨터, 피아노, 고무, 구두 등
<b>한자어</b>	중국의 한자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단어. 중국에서 들어온 말, 일본에서 만들어져 들어온 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낸 말 등이 있음. ㉠책상, 필통, 택배, 감기, 식구 등
<b>기타</b>	고유어나 한자어, 외래어가 결합된 단어. ㉠책꽂이(冊-), 달력(-曆), 연필깎이(鉛筆-) 등

**외래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태도**

- 무분별한 외래어의 사용을 줄이고 고유어를 살려 써야 함.
- 외국에서 새로 들어온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순화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함.
- 사전 찾기를 생활화하여 고유어와 순화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 가상공간에서의 언어 사용 특징**

<b>특징</b>	가상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줄임말, 소리 나는 대로 쓴 말, 자음만 쓰거나 형태를 바꾼 말, 신조어, 은어, 이모티콘 등이 나타남.
<b>문제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의 모습(맞춤법, 띄어쓰기, 올바른 문장 표현 등)을 해침.</li> <li>• 가상 공간 언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생김.</li> <li>• 현실에서의 언어 사용에 혼란이 일어남.</li> <li>• 특정 언어의 사용 주기가 짧아져 어휘의 생명력이 약화됨.</li> </ul>
<b>바람직한 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기본적인 어문 규범을 준수해야 함.</li> <li>•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관습을 고려하며 내용과 형식이 적절한지 유의하여야 함.</li> <li>•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li> <li>•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갖추어야 함.</li> <li>• 지역, 세대, 성(姓) 차별적 표현이나 비속어를 삼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함.</li> </ul>

**■ 세계 속 한국어의 위상**

한국의 국가 위상이 높아진 점,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의 우수성 등에 기인하여 한국어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 한국어에 자긍심을 지니고 모국어 학습에 힘써야 함.
- 우리의 말과 글이 세계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 현실과 가상 공간 모두에서 어문 규범과 언어 예절에 알맞은 우리말을 구사해야 함.
- 외래어와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고유어를 가꾸며 널리 사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함.

**크리스틴 윌리엄 모음**

**다음 글을 읽고, 예부터 이어 온 우리의 말하기 태도를 알아보자.**

옛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왜 말을 적게 해야 한다고 여겼겠는가? 단지 말할 만한 것은 말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하고, 바르지 못하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말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경계한다면, 말을 적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한 “선한 사람은 말수가 적다.”라고 했다. 꼭 말을 해야만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익혀 외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항상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 글을 적어 스스로 마음속에 새기고자 한다.

- 윤희, 《백호전서》

9-(2) 국어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1) 이 글에서 강조하는 말하기 태도를 정리해 보고, 선인들이 지향했던 말 문화를 짐작해 보자.

- 이 글에서 강조하는 말하기 태도
  - 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 ④ 바르지 못하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 선인들이 지향했던 말 문화: 선인들은 말을 삼갈 줄 아는 문화를 지향하였다.

(2)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 가운데 ‘말’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과 유사한 것을 찾아보자.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말은 적을수록 좋다.
-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③ 다음 글에 나타난 담화 관습을 알아보자.

우중충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며느리는 아이를 업고 다림질을 하고 있다. 이웃 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말을 건네 온다.

“아가, 할미가 업어 줄까.”

이 말은 할미가 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비가 뿌리는 밖에 널려 있는 빨래를 빨리 거뒀더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당부이다. 며느리는 그 말을 통찰력으로 알아듣고 빨래를 거뒀들이다.

- 이규태, <헛기침으로 백 마디 말을 한다>

(1) “아가, 할미가 업어 줄까.”라는 말의 의도와 효과를 말해 보자.

의도	효과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며느리에게 밖에 널려 있는 빨래를 거뒀들에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명령의 의도를 완곡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 며느리가 그 속뜻을 통찰력으로 알아듣고 빨래를 거뒀들여 그것이 비에 젖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얻는다.

(2)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담화 관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이 글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담화 관습을 발견할 수 있다.

(3) 이러한 담화 관습 외에 우리의 전통적 담화 관습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 빗대어 말하기: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구체적인 사물에 이입하여 표현하는 방식. 이로써 선인들은 직접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욱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었다.
- 신중하게 말하기: 선인들은 말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또 조심스런 말과 행동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말이 유창하거나 많은 것보다 말을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으며, 말이란 그의 인격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 겸양의 말하기: 자신에 대한 칭찬은 최대한 줄여서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그를 높여 말하는 방식. 우리 선인들은 말을 할 때에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생각하고 표현하려 했다.
- 언행일치의 말하기: 선인들은 말과 행동, 또는 말과 실질이 부합하지 않는 언어 사용을 경계하였다. ‘말이 앞서지 일이

9-(2) 국어가 더 아름다워지려면

앞서는 사람 본 일이 없다.’라는 속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꺼리고 언행일치를 강조한 것이다.

- 귀 기울여 듣고 선택적으로 듣기: 우리의 전통적인 듣기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들을 말과 듣지 않을 말을 가려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기타: 상대방에 맞는 높임법을 사용하는 말하기, 해학적 표현을 통해 고된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말하기 등

① 다음 드라마 내용을 보고, 담화 관습을 성찰해 보자.

경준, 병실 밖 복도에서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다.

경준 머리에 이데마(edema, 부종)가 있고, 디컴프레션(decompression, 감압)해야 해서 우선 머리는 열어 놔어요.

태호,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경준이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춘다.

경준 교통사고 환자라……, 미드 라인(mid line, 뇌 중심선)도 다 밀려 있던 상태라, 의식이 돌아와도 예전처럼 생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데마가 뭐예요  
 경준 아……. 저기, 이데마가 뭐냐면……. 아, 부종!  
 보호자 그럼 머리가 부었다단 말이에요?  
 경준 예, 그렇죠.  
 보호자 (긴가민가하여) 아무튼,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단 말이지?  
 경준 예, 그렇죠.  
 보호자 알겠어요. (살짝 웃으며)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를 지켜보던 태호, 언짢은 표정으로 중대에게 지시한다.

태호 전공의들 다 회의실로 모이라고 해!  
 중대 (태호의 눈치 보며) 네.

전공의들, 회의실로 하나들 모인다.

태호 강경준.  
 경준 네?  
 태호 아까 이수진 환자 보호자한테 설명한 거 그대로 해 봐.  
 경준 (기가 죽어 더듬거리며) 예……. 머, 머리에 이데마가 있고 디컴프레션해야 해서……. 우선, 머리는 열어 놔어요…….  
 태호 (경준의 말을 끊으며) 됐어! 여기서 문제점이 뭔가? 피영국!  
 영국 문제점은 없지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태호 (격앙된 어조로) 이것들이 진짜……. 환자한테 의학 용어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이 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나 김태호가 있는 한 그게 원칙이야.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눈앞에서 버젓이 그러고 있어?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로 환자와 난 다르다는 의식 갖지 말라고!  
 경준 죄송합니다.  
 태호 너희들은 전공의다. 말 그대로 수련 과정에 있는 의사들이야. 기술만 배우지 말고 정신도 같이 배워야 돼!  
 전공의들 네!

- 하명희 각본, 오충환 연출, <닥터스> 제6회

(1) 경준이의 말하기에 나타난 담화 관습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담화 관습이 형성된 까닭을 생각해 보자.

담화 관습의 특징	담화 관습이 형성된 까닭
대화 상대(보호자)가 이해하기 힘든 의학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함.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할 때 일종의 권위 유지 기능을 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2) 태호가 왜 화를 냈는지 생각해 보고, 다른 언어 공동체와 소통할 때 필요한 태도를 말해 보자.

- 태호가 화를 낸 까닭: 경준이 보호자에게 의사들끼리만 아는 의학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설명함으로써 보호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였기 때문이다. / 경준이 보호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과 상대가 다르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말하였기 때문이다.
- 다른 언어 공동체와 소통할 때 필요한 태도: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자를 배려하여 쉽고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대화 상대의 상황과 심리를 고려하여 그에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음 기사를 읽고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성찰해 보자.**

예전과 달리 요새는 ‘병신’이나 ‘귀머거리’, ‘장님’ 같은 말을 좀처럼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정착된 듯하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도 ‘병어리 냉가슴’이나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니 하는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쓴다.

물론 나쁜 의도는 전혀 없으며 예전부터 사용하던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쓴 것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표현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옳다. ‘말 못 할 고민에 빠졌다’든가 ‘주먹구구식’ 등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표현들을 궁리해 봐야겠다.

- 《한국일보》 2016년 6월 7일 자 기사

(1) ‘병어리 냉가슴’, ‘장님 코끼리 만지듯’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표현에 쓰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게 된다.

**원복고등학교 (서울)**

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한국인의 담화관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프라이어 원장이 본 '신기한 한국문화'

마틴 프라이어 주한 영국문화원장은 문화적 차이에 따른 흥미로운 장면을 한국에서 자주 목격한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한국에서 선배인 사람이 '쓰는 문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비슷한 연배인 사람끼리 자리를 함께할 경우,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서로 자기가 돈을 내겠다며 마치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지금 봐도 매우 재밌다"며 웃었다. <중략>

프라이어 원장은 한국이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도 좋아한다고 했다. 그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주인은 손님에게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말한다"며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의아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이런 손님 대접 방식이 익숙하고 매우 좋다"고 설명했다.

- 2016년 3월 30일 문화일보

- ① 예의를 중시하여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담화관습이다.
- ② 말을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담화관습이다.
- ③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담화관습이다.
- ④ 상대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여 긴장을 이완하도록 하는 담화관습이다.
- ⑤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담화관습이다.

**원복고등학교 (서울)**

2.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표현을 학생들이 찾은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런링맨' 전소민 단발머리 변신 - 지식진, "촌스럽다" 돌직구  
 - 2018. 09. 02. 스포츠투데이

"봉급쟁이, 당신들이 부럽소." - 자영업자 소비심리 추락  
 - 2018. 03. 12. 아시아경제

귀경길 고속도로 상행선 '꽉'-강릉서 서울 3시간 이상 소요  
 - 2018. 09. 09. 뉴스핌

주아의 색종이로 병어리장갑 만들기  
 - 2017. 12. 29. 뉴스타운

김예원, SBS '흉부외과' 캐스팅 - 열혈 여의사 역  
 - 2018. 08. 07. 조이뉴스24

- ① '촌스럽다'는 도시가 아닌 지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차별의 시각이 담긴 표현이므로 '세련되지 못하다'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겠어.
- ② '봉급쟁이'은 봉급생활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쟁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어.
- ③ '상행선'을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는 지역 차별적 표현이므로 '서울행'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겠어.
- ④ '병어리장갑'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므로 '엄지장갑' 또는 '손모아장갑'과 같은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겠어.
- ⑤ '여의사'는 '의사'의 기본 성별을 남자로 보기 때문에 생겨난 성차별적 표현이므로 '여의사', '남의사'로 구분해서 쓰는 것이 좋겠어.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현암고등학교 (경기)**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예전과 달리 요새는 ‘병신’이나 ‘귀머거리’, ‘장님’ 같은 말을 좀처럼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이제는 정착된 듯하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서도 ‘병어리 냉가슴’이니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니 하는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쓴다.

물론 나쁜 의도는 없으며 예전부터 사용하던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쓴 것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표현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옳다. ‘병어리 냉가슴’ 대신 ( ㉠ ) ‘장님 코끼리 만지듯’ 대신 ( ㉡ ) 등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표현들을 궁리해 봐야겠다.

- <한국일보> 2016년 6월 7일자 기사 -

(나) 옛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왜 말을 적게 해야 한다고 여겼는가? 단지 말할 만한 것은 말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하고, 바르지 못하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말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경계한다면, 말을 적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한 “선한 사람은 말수가 적다.”라고 했다. 꼭 말을 해야만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익혀 외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항상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 글을 적어 스스로 마음속에 새기고자 한다.

- 윤희, <백호전서> -

- (1) (가)글은 언어 공동체의 담화관습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사문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쓰시오.
- (2) (나)글과 관련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 가운데 글쓴이의 관점과 유사한 것 2개를 쓰시오.

**현암고등학교 (경기)**

4. 다음을 읽고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리 소통망(SNS)에서의 대화>

학생 1 : “애들아, 우리 모둠 과제 어떻게 됨?”  
 학생 2 : “혈, 까먹고 있었음.”  
 학생 3 : “우리 홍보 동영상 만드는 거 어때?”  
 학생 2 : “신박하진 않지만 ㄱ.”  
 학생 1 : “신박하지 않은데 왜 강추야?”  
 학생 4 : “뒤투. 괜찮다는 뜻이잖아.”  
 학생 1 : (혼잣말로) ‘강추가 괜찮다는 뜻이라고? 자음만 쓰니 헛갈리네.’

- ① 영수 : ‘ㄱ처럼’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적인 국어의 모습을 해치기도 해.
- ② 찬진 : 또 ‘ㄱ’을 ‘강추’와 ‘괜찮다’라는 다른 뜻으로 사용한 것처럼 의사소통을 방해하기도 해.
- ③ 강민 : 아무래도 가상 공간의 언어는 청소년이나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은 게 사실이지.
- ④ 진선 : 하지만 특정 언어의 사용 주기가 길어져 어휘의 생명력이 길어지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
- ⑤ 방현 : 결국 가상 공간에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지니는 게 중요한 거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의사소통하는 사회 집단을 언어 공동체라고 한다. 언어 공동체는 가족, 지역, 세대, 성별 외에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언어 공동체는 내용과 형식은 물론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법조인들로 구성된 언어 공동체는 법률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다.

(나) 옛사람들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왜 말을 적게 해야 한다고 여겼는가? 단지 말할 만한 것은 말해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또한 하지 않아야 한다.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하고, 바르지 못하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말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경계한다면, 말을 적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한 “선한 사람은 말수가 적다.”라고 했다. 꼭 말을 해야만 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익혀 외운 지 오래되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항상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 글을 적어 스스로 마음속에 새기고자 한다.

(다) 우중충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금 며느리는 아이를 업고 다림질을 하고 있다. 이웃 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말을 건네 온다.

㉠“아가, 할미가 업어 줄까.”

이 말은 할미가 손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비가 뿌리는 밖에 널려 있는 빨래를 빨리 거뒀더라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당부이다. 며느리는 그 말을 통찰력으로 알아듣고 빨래를 거뒀다.

**대구제일고등학교 (대구)**

5. (나)에서 선인들이 경계해야 한다는 말들 중,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만 쓰시오.

**대구제일고등학교 (대구)**

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다)는 담화 관습의 고유성에 주목하고 있다.
- ② (가)는 대상의 개념과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는 고인들의 언어관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나)의 관점과 유사한 속담으로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를 들 수 있다.
- ⑤ (다)는 ‘할미’의 담화를 통해 고부간의 담화 단절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제일고등학교 (대구)**

7. (가)~(다)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의 담화 관습은 그가 속한 공동체와 무관하다.
- ② 개인은 성별, 지역, 나이 등에 따라 단일 언어 공동체의 특징을 드러낸다.
- ③ 옛날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말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
- ④ 전문성이 낮은 언어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진실이 아닌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 ⑤ 담화 중에는 의도적으로 화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는 담화도 있다.

**대구제일고등학교 (대구)**

8.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말을 할 때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 ② 자기를 자랑하는 말은 불필요한 말 중 하나이다.
- ③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좋다.
- ④ 위인의 말을 답습하는 것이 좋은 말하기의 시작이다.
- ⑤ 말을 할 때는 자기 말의 진실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대구제일고등학교 (대구)**

9. (다)의 ㉠과 유사한 담화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수업 시간 경청하지 않고 휴대폰 게임을 하는 재우에게 선생님이 하는 말) 재우야, 신나는 게임 하나 보네?
- ② (아들이 방 책상을 정리하지 않아 당장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할 때 어머니의 말) 평소에 책상 좀 잘 정리해두라고 했잖니?
- ③ (창문이 닫혀있는 교실 안에 있던 소미가 친구에게 하는 말) 교실이 좀 갑갑하지 않니?
- ④ (친구들과 놀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온 다은이에게 어머니가 하는 말) 다은아, 요즘 밤에 사고가 많이 난다더라.
- ⑤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겠다고 말한 어머니가 아무 말이 없자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오늘 날씨 정말로 좋네요!

27.⑤ 28.⑤ 29.③ 30.① 31.③ 32.⑤ 33.④ 34.② 35. ㉠감정 ㉡이입 ㉢청산, 강물, 꽃, 버들가지, 복사꽃, 피꼬리, 두견이 36.③ 37.③ 38.② 39.① 40.⑤ 41.④ 42.⑤ 43.심봉사가 눈을 뜨고 심청과 다시 재회하는 내용에서 고전소설의 특징인 선한 주인공이 행복에 이르는 권선징악을 확인할 수 있다. 44.④ 45.① 46. ⑤

### 6-(3)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

1.③ 2.③ 3.① 4.② 5.① 6.② 7.⑤ 8. (1) 샷, 딜옹배기, 복덕불, 나뭇손, 바우 숲 (2) 토속적인 정감을 준다, 모국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 위해 쓰였다. 9. ⑤ 10.④ 11.③ 12.(1) 객관적 상관물 (2) '갈매나무'는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상으로 화자로 하여금 시련 속에서도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짐하게 하는 존재이다. 13.② 14.㉠: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눈을 맞음 ㉡: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상 15.④ 16.㉠<보기1>: 객관적 상관물, <보기2>: 감정어입 ㉡(가)의 '갈매나무'는 갈매나무에 화자의 의지를 투영하여 드러낸 것으로 보아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17.② 18. ④ 19.⑤ 20.⑤ 21.③ 22.④ 23.① 24.① 25.⑤ 26.객관적 상관물, 화자는 외로움과 추위를 견디는 모습의 ㉠'갈매나무'처럼 시련 속에서도 의연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27.④⑤ 28.① 굳고 정한 ② 객관적 상관물 ③ 상징적 29.④ 30.④ 31.④ 32.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33.③ 34.⑤ 35.② 36.갈매나무 / 위 시와 '보기'의 '갈매나무'는 모두 굳센 이미지를 지닌 소재로서, 시의 화자와 소설 속 인물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7.④ 38.⑤ 39.④ 40.③④⑤⑥ 41.② 42.운명이라는 43.② 44.④ 45.③ 46.⑤ 47.④ 48.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냄. 49.⑤ 50.④ 51.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52.① 53.③ 54.⑤ 55.④ 56.②

### 6-(4) 삼포 가는 길

1.④ 2.⑤ 3.① 4.⑤ 5.③ 6.⑤ 7.② 8.⑤ 9.④ 10.② 11.③ 12.② 13.1970년대 산업화에 따라 고향을 잃은 민중의 고달픈 운명을 여운을 남기며 암시하고 있다. 14.③ 15.③ 16.② 17.③ 18.② 19.③ 20.㉠ 비유적 ㉡ 고달픈 운명이 계속될 것 21.① 22.④ 23.⑤ 24.③ 25.① 26.③ 27.② 28.금상첨화 29.변해버린 삼포는

산업화로 인해 농어촌이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음을 말해준다. 작가는 변화된 삼포를 통해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30.㉠ 급격한 산업화로 농촌이 붕괴하면서 고향을 잃고 이곳저곳 떠도는 하층민이다. ㉡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31.③ 32.④ 33.⑤ 34.② 35.② 36.④ 37.⑤ 38.고향이 도시화 및 산업화가 되면서 고향 상실감에 따른 쓸쓸함 혹은 소외감을 느낌 39.① 40.② 41.⑤ 42.③ 43.④ 44.③ 45.① 46.② 47.④ 48.① 49.⑤ 50. ⑤ 51.1인칭 내부 시점에서 3인칭 외부 시점으로 변화함. 52.유대감과 고마움을 느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줌.

### 7-(1) 로봇 시대, 인간의 일

1.③ 2.④ 3.⑤ 4.② 5.유연성, 창의성 6.④ 7.② 8.② 9.④ 10.② 11.④ 12.⑤ 13.⑤ 14.② 15.⑤ 16.③ 17.④ 18.② 19.④ 20.③ 21.③ 22.⑤ 23.③ 24.③ 25.② 26. ③ 27.④ 28.㉠ 합리적(이성적) ㉡ 해결 방안 ㉢ 기계와의 공생·공존 29.③ 30.⑤ 31.② 32.② 33.기억 대신 더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 '검색'의 뇌 기능을 발달시켜 이를 활용해야 한다. 34.기계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특징인 감정과 의지를 강화하고, 기계에 가르칠 수 없는 속성인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로봇을 잘 활용해야 한다. 35.④ 36.③ 37.④ 38.③ 39.⑤ 40.⑤ 41.④

### 7-(2) 추모 공원 건립에 대한 협상

1.④ 2.① 3.⑤ 4.③ 5.④ 6.[A] 대학 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 시설 설립을 허가한다. [B] 화장 시설과 진입로를 지하화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7.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 (가): 여진을 몰아내고 고려의 옛 땅을 되찾아줄 테니, 우리와 왕래하자. 8. ② 9.③ 10.③ 11.(1) 화장 시설과 진입로를 지하화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2) 화장 시설 설치가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12.② 13.③ 14.⑤ 15.③ 16.③ 17.② 18.① 19.⑤ 20.④ 21.④ 22.⑤ 23.① 24.(1) 수정안 제시에 감사를 표함. (2) 요구를 반영하여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 설계안을 제시함. 25.③ 26.⑤ 27.푸른시는 초록구에 시립 의료 병원을 이전하도록 하며 불가능할 경우 대학 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 시설 설립을 허가한다. 28.초록구는 환경적 피해로 인한 삶의 질의 하락과 주거 조건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8-(1)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1.① 2.⑤ 3.④ 4.다람쥐를 노리는 다른 동물들이 많다. 5.② 6.③ 7.② 8.④ 9.④ 10.⑤ 11.수다람쥐에게 야생 다람쥐의 습성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12.① 13.② 14.㉠어머니는 신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했다. ㉠어미 다람쥐의 죽음이 신이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고양이가 새끼 다람쥐를 기르는 것을 보고 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15.⑤ 16.④ 17.③ 18.④ 19.① 20.② 21.⑤ 22. ② 23.⑤ 24.④ 25.④ 26.(1)어머니, 나(어머니의 둘째 아들) (2)야생 동물의 자유를 알아야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사람들은 왜 모를까? 귀여워서 갖고 싶을수록 놓아 주어야 한다.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27.③ 28.⑤ 29.어머니는 인간 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태계의 가치를 존중하려고 한다. 길고양이도 야생 동물이므로 인간적 시선으로 먹이를 주고 길들이다 보면 야생 본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30.① 31.① 32.② 33.⑤ 34.① 35.⑤ 36. ④ 37.① 38.② 39.③ 40.어머니는 술독에 사는 다람쥐가 야생 동물의 습성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생 다람쥐를 달라고 했다.

**9-(1) 국어의 어제와 오늘**

1.⑤ 2.④ 3.① 4.⑤ 5.㉠ ㄱ, ㄴ, ㄹ, ㅅ, ㅇ ㉡ ㅂ, ㅅ, ㅈ, ㅊ, ㅋ, ㆁ 6.이어적기(연철) 7.⑤ 8.② 9.⑤ 10.③ 11.⑤ 12.④ 13.② 14.④ 15.(1) | (2) 을 (3) ㅅ 16.‘爲원하야’에서 보듯이 중세 국어에서 잘 지켜지던 모음조화가 현대 국어에서는 ‘위하여’에서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다. ‘中東國語’의 ‘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로 현대 국어에서 ‘과’로 쓰인다. ‘스물’이 현대 국어에서는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 ‘스물’로 쓰인다. ‘홍배’에서 보듯이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주격조사 ‘가’가 중세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17.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다. 18.① 19.어휘 면에서 기존 어휘가 없어지기도 하고, 형태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며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거나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한다. 어휘 소멸은 ‘전촉, 스몯디’, 의미 이동은 ‘어린, 어엿비’, 의미 축소는

‘말씀, 놈’이 그 예이다. 20.③ 21.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22.② 23.③ 24. ③ 25.③ 26.② 27.㉠, ㉡, ㉢, ㉣, ㉤, ㉥ 28.③ 29.④ 30.③ 31.⑤ 32.①③ 33.① 34.⑤ 35.공통적으로 설명한 문법 원리는 모음조화이다. 모음조화는 ‘ㅏ, ㅑ, ㅓ’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ㅕ, ㅗ’ 따위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36.⑤ 37.① 38.③ 39.② 40.② 41.④ 42.③ 43.㉠ 부모계서 아드리 마를 드르샤 ㉡ 다섯 술윗 그를 쓰다 44.(A): 바름+애 (B): 바름+애 (C): 장긋판+울 (D): 아 들+은 (E): 모음 조화 45.② 46.㉠ 벼씨 ㉡ 이뻐 ㉢ 못뜰 47.④ 48.③ 49.④ 50.① 51.② 52.③ 53.② 54. ③ 55.④ 56.① 57.② 58.훈민정음에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니 우리 것이 필요하다는 ‘자주정신’, 한자가 어려워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든 ‘창조정신’,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쓰기에 편하게 만들고자 했던 ‘실용정신’이 나타난다. 59.8중성법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자만 받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60.초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을 만들었고, 가획의 원리에 의해 ‘ㅋ, ㆁ, ㄷ, ㅌ, ㅍ, ㅊ, ㆁ, ㅎ, ㄹ, ㅅ’을 만들었다. 중성은 상형의 원리에 의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를 만들었다. 중성은 중성부용초성에 의해 중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했다. 61. 밍꺄노니 : 밍꺄- + -ㄴ- + -오- + -니

**9-(2) 국어가 더 아름다워지면**

1.① 2.⑤ 3.(1) ㉠: 말 못할 고민에 빠지다 ㉡: 주먹구구식 (2) 말은 적을수록 좋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4.④ 5.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6.⑤ 7.⑤ 8.④ 9.② 10.(1)표면적 의미: 며느리 대신 자신이 아이를 업겠다. 이면적 의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며느리에게 아이를 내려놓고 빨래를 걸으라고 명령한다. (2)둘러 말하기, 완곡어법 11.⑤ 12.③ 13.③ 14.① 15.② 16.① 17.④ 18.③ 19.⑤ 20.⑤ 21.① 23.③ 24.⑤ 25.② 26.① 27.③ 28.① 29.② 30.③ 31.③ 32.(1)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페이크 뉴스는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2) 선인들은 말

## 답변 및 정답

---

을 삼갈 줄 아는 문화를 지향했다. 33.㉔ 34.㉑ 35.㉓  
36.㉗에 해당하는 문화는 ㉔이다. 고맥락 문화는 의사  
소통 시에 말보다는 맥락과 상황을 중요시하고, 돌려  
말하기의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37.㉔ 38.㉑

- 끝 -

## 5-(2) 우리말의 문장 표현

1.②

③ ‘만든’의 ‘-ㄴ’은 과거시제를 나타냄. ④ 피동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가 있음. ⑤ ‘배송이 끝난 날 짜로부터 열흘이 지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이중피동이 아님.

2.①

② 경쟁률→경쟁률 ③ 믿겨지지→믿기지 혹은 믿어지지 ④ 잊혀진→잊어진 혹은 잊힌 ⑤ 하겠다라고→하겠다고

3.④

▶ 피동 표현으로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음.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능동 vs 주동 vs 피동 vs 사동 (★★★)**

ㄱ. 능동적=주동적=스스로 움직임!

ㄴ. 피동: 주체가 일을 당함 (문이 닫힌다)

ㄷ. 사동: 주체가 일을 시킴 (철수가 문을 닫게 한다.)

이중피동은 무조건 불가하지만 이중사동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1) 그는 그녀를 울렸다.(○)

→사동표현: [ 울+리(사동)+었+다 ]

2) 그는 그녀를 울게 하였다.(○)

→사동표현: [ 울+게 하(사동)+었+다 ]

3) 그는 그녀를 울리게 하였다.(X) →불필요한 이중사동

4) 그는 그녀를 재우다.(○)

→이중사동 허용: [ 자+이(사동)+우(사동)+다 ]

5) 그는 그녀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게 하다.

→이중사동 허용: [ 먹+이(사동)+게 하(사동)+다 ]

3)이 불필요한 이중사동인 이유는 1)과 2)와 같이 사동표현 하나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②

▶ ‘~잘 익어 가겠다’(진행상)

5.②

▶ ‘치아’만 ㉠에 해당하고 ㉡은 없음.

6.④

▶ ‘-었-’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나타냄.

7.③

▶ ㉠ : ‘-ㄴ’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냄.

8.②

▶ ‘비치는’이 맞은 표현이고 ‘비취지는’는 불필요한 피동표

현임.

9.④

▶ ㉠의 ‘보였다’는 사동사이고 ㉡의 ‘보였다’는 피동사임.

11.①

② 비격식체에 해당 ③ 하십시오체에 해당 ④ 해체에 해당 ⑤ 해요체에 해당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상대(청자) 높임법 (★★)**

ㄱ. 이 책을 읽으십시오. (격식체 /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표현)

ㄴ. 이 책을 읽으시오. (격식체 / 하오체: 보통 높임 표현)

ㄷ. 이 책을 읽게. (격식체 / 하게체: 보통 낮춤 표현)

ㄹ. 이 책을 읽어라. (격식체 / 해라체: 아주 낮춤 표현)

ㅁ. 이 책을 읽어오. (비격식체 / 해요체: 두루 높임 표현)

ㅂ. 이 책을 읽어. (비격식체 / 해체: 두루 낮춤 표현)

12.②

▶ ‘드신다’만 주체 높임이고 나머지는 모두 객체 높임임.

▶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높임법의 종류(★★)**

1) 주체 높임법: 서술어에 호응하는 주어 높임.

‘선생님께서 가시다’

2) 상대 높임법: 청자를 높임.

‘학생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책을 읽어오!’

3) 객체 높임법: 부사어 혹은 목적어를 높임.

‘내가 할머니께 돈을 드렸다’

한 문장 안에서 2개 이상의 높임법이 사용될 수 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제 만나신 할머니께 제가 돈을 드렸어요.’

(화자: 나, 주체: 아버지, 청자: 어머니, 객체: 할머니)

(주체 높임: 만나신, 청자 높임: ~요, 객체 높임: 드렸~)

13.⑤

▶ ‘읽은’만 과거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재임.

14.⑤

▶ ㉠: 과거, ㉡: 미래, ㉢: 현재

① ‘지금, 이제’는 현재시제에서 사용함. ② ㉠과 ㉡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화자가 말하는 시점이 동일한 시제임. ③ ㉢은 미래시제일 뿐, ‘가능성’의 의미는 없음. ④ ㉠에는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이 사용된 현재 시제임.

15.④

▶ ‘잊혀진’=‘잊+히(피동)+어 지(피동)’으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

① ‘-지다’는 용언 뒤에 붙음. ② 주어가 당한 경우에 사용. ③ ‘끼여들기’(×)→‘끼어들기’ ⑤ 동사의 어간에 ‘-이-, -히-, -리-, -기-’의 4종의 접사를 붙여 표현한다.

16.②

▶ ‘환불+되(피동)+지’와 같이 피동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는 특성을 있음.

① 피동은 한 번 있을 뿐, 이중 피동은 아님. ③ ‘모여지다, 쓰여지다, 믿겨지다’ 은 이중 피동임. ④ 체언에 ‘-되’를 붙여서 만들어진 표현임. ⑤ “다음에 들를 장소는 광화문이 되겠습니다.”에는 피동이 없음.

17.①

▶ 저도 가냐고(×)→자신도 가냐고

18.②

ㄱ. ~께서(주체 높임) ㄴ. ~께서(주체 높임) 마치셨습니다(청자높임) ㄷ. 모시고(객체 높임)

19.⑤

▶ 지난 번 그 일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주체 높임) 부모님께(객체 높임) 여쭙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상대 높임)

- ① 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객체 높임)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었다.
- ② 선생님, 주말에 정희와 함께 잠깐 뵈리(객체 높임) 가도 괜찮을까요?(상대 높임)
- ③ 할아버지께서(주체 높임) 길에 쓰러져 계신(주체 높임) 모습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 ④ 저는 딱 하루만 친구들과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노는 것이 소원이예요.(상대 높임)

20.④

▶ (라)는 미래의 사건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과거형일 뿐임.

21.③

▶ ‘타고 있네’는 진행상과 완료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됨.

22.②

▶ 능동문이 피동문에 비해 주관적인 느낌으로 사실을 전달함.

23.⑤

▶ 아버지께서(주체 높임) 할머니를 모시고(객체 높임) 가셨습니다.

- ② 진아가 할머니를 뵈리(객체 높임) 갔다.
- ③ 할아버지께서(주체 높임) 책을 읽으신다.
- ④ 이 박사님께서(주체 높임) 어제 도착하셨어요.

24.

보러가는데 → 뵈러가는데  
할머니가 → 할머니께서  
좋아할 것 → 좋아하실 것  
3만원 이십이다 → 3만원입니다

27.④

㉠ ‘모시다’는 객체 높임말임. ㉡ ‘해요체’는 비격식체, ‘해라체’는 격식체임.

28.④

①, ② 문장의 객체는 ‘선생님’임. ③, ⑤ 객체를 높이려면 ‘선생님에게’를 ‘선생님께’로 수정해야함.

29.①

- ② 장인이 사위에게(해라체) : “어서 와라.”
- ③ 엄마가 딸에게(하계체) : “자네, 어서 오게.”
- ④ 어르신이 젊은이에게(하오체) : “어서 오시오.”
- ⑤ 박 부장이 김 과장에게(하십시오체) : “김 과장, 어서 오십시오.”

31.③

▶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에서 ‘-겠-’은 의지를 나타냄.

37.⑤

- ① 간접 인용 표현은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사용한다.
- ② 직접 인용 표현은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③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상대 높임 표현과 인칭 대명사가 달라진다. ④ 간접 인용 표현을 매끄럽고 간결한 느낌을, 직접 인용 표현은 생생한 느낌을 준다.

38.①

▶ 이런 사태를 당하여(㉠)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39.②

▶ 아버지께서는(주체 높임) 할머니를 뵈리(객체 높임) 큰댁에 가셨습니다(상대 높임)

- ① 내일 시간이 되면 우리 같이 밥 먹어요(상대 높임)
- ③ 회수가 할아버지를 모시고(객체 높임) 춘천여행을 떠났습니다.(상대 높임)
- ④ 사장님께서(주체 높임) 직원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시다(주체 높임)
- ⑤ 수업이 끝나자 승희는 담임 선생님께(객체 높임) 출석부를 갖다 드렸다(객체 높임)

40.③

▶ 의문문일 때 종결어미는 ‘-까’로 명령문일 때 종결어미는 ‘-라’로 바뀜.

41.④

▶ ㉠의 ‘막히는’: 현재시제, ㉡의 ‘받은’: 과거시제를 나타냄.

42.④

▶ 아버지는 객체가 아닌, 주체임.

43.①